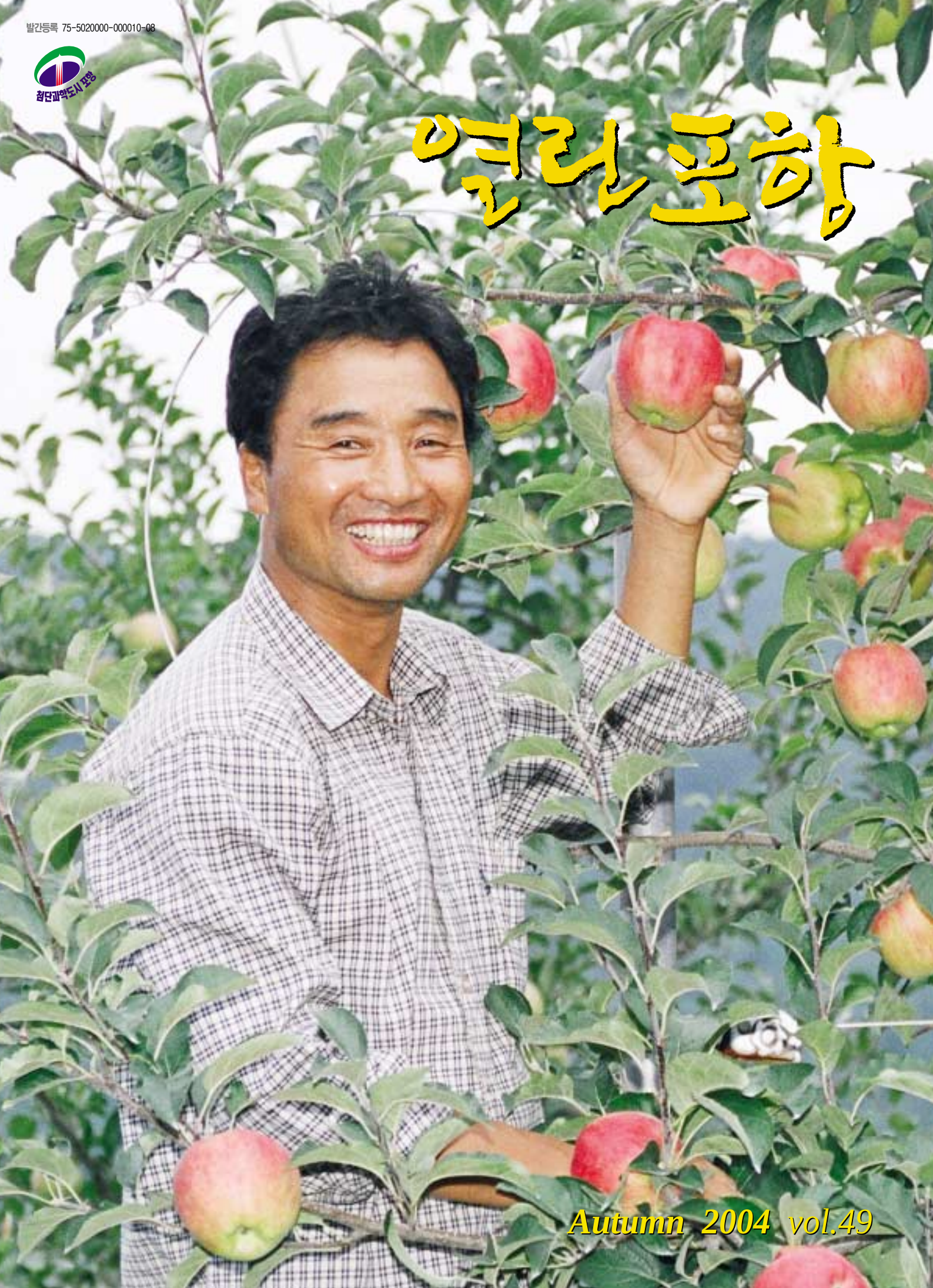


여름 풍하



칠포바다 그 물빛

그림자가 잔잔하다. 칠포 바다
물빛은 코발트 벨벳. 여름 내내
태워 끓히던 기다림의 눈썹 끝이 수평선에서 바르르 켜진다
홍해 안 들 곡강천변 코스모스 꽃숲이 출렁인다
지난 여름 떠난 것들을 호명하듯
물새 떼가 물빛 호루라기를 꺼내 불면
기억의 날은 무더져 길을 지우고
차 바퀴자국만큼이나 떨어진 시간마다
추억의 웅덩이가 깊이 패여도 좋다
칠포바다 천지가 시퍼렇게 그리움의 멍들어도 좋겠다
모퉁이를 돌면
끊어진 길들이 안부를 묻듯 이어지고
산굽이마다 눈에 익은 구절초 쪽부쟁이 억새꽃 해국이
숫대처럼 그대 안녕하시냐고 까치발이다
기다림은 여름 지나 구월이 저물어도 좋다
물 이랑에 허방다리 짚어 바짓가랑이 적셔도 좋겠다
기다림이 칠포바다 그 물빛 같기만 하다면
눈매 고운 노을처럼 저물고 저물어서.



김 성 환 시인

시인, 동지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1989년 <시문학> 주최 전국 대학생 문예현상공모 시부문 장원

1996년 <포항문학>으로 작품활동 시작

현재 포항문인협회 회원

시집 「시인은 죽어서 바다가 된다」



죽장산사과와 함께 익어가는 가을

제 호 盧舟鄭普仁

표지사진 서 태 조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사진설명 북구 죽장면 상옥리 죽장산사과 재배 농민 손대원(54세)씨가 그의 과수원에서 추석 대목에 출하할 붉고 탐스럽게 익어 가는 사과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으며 풍성한 결실의 기대에 한껏 부풀어 환한 웃음을 얼굴 가득 머금고 있다.

제2의 영일만 기적!
첨단과학도시 포항이 이룩하겠습니다.

푸른파도 푸른꿈 푸른포항

- 시 정 목표 -

1. 봉사하는 민주행정
2. 화합하는 애환시민
3. 역동하는 지역경제
4. 웅비하는 첨단도시

발행처 포항시

발행인 포항시장 정장식

편집인 문화공보관광과장 손수익

편집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천목원, 서태조(사진)

발행일자 2004년 9월 20일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www.ipohang.org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편집진의 견해이며
포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포항

AUTUMN 2004 vol.49

CONTENTS

마음을 여는 창 / 칠포바다 그 물빛

02 열린칼럼 _ 구자문 / 서병철

04 포항뉴스 _ 국가나노기술직접센터 포항에 유치 외

06 우리 고장의 역사기행 _ 지역의 향교를 찾아서 / 홍해읍성

09 삶의 향기를 담아서 - 가을 _ 김두호

10 포항사람 _ 이태영 / 이상섭

14 연중기획 _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포항 발전전략

18 우리고장의 명소를 찾아서 _ 가을꽃 코스모스 향기에 흠뻑
봉좌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22 우리고장의 명품을 찾아서 _ 명품, 죽장산사과

24 우리고장의 명소를 찾아서 _ 오션힐스 포항C·C, 오는 10월 개장

25 우리꽃 우리나무 _ 보랏빛 생명 꽃피우는 가을 야생화, 해국

26 탐방-교육 현장으로 간다 _ 포항동부초등학교

28 탐방-첨단 기술로 승부를 건다 _ 바이오 벤처 선도기업, 제노마인

30 탐방-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_ 포항푸드뱅크

32 포토-세계해병전우인축제

34 테마기획 _ 이제 주5일 근무시대다 외

40 영일만 문예광장

문예논단 조우정 / 문화공간 장기충효관 / 문화예술단체 창사모 / 문화가뉴스

46 10대들의 공간 _ 동아리 / 10대들의 뉴스 / 꽃동네 체험수기

52 Hi-Tech 정보마당 _ 대형프로젝트 정부지원 약속으로 가속화 외

54 포항시의회 _ 제10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최 외

57 오광장 _ 김태욱 / 정광구 / 송정예 / 신현경 / 이재경 / 권승일

61 우리고장의 유래와 전설 _ 탑산사 폐사에 얽힌 전설

62 추억의 그때 그 시절 _ 가을소풍

64 리빙매거진 _ 재미있는 건강상식 / 생활의 지혜

65 알릴터

68 누구나 참여하는 재미있는 퍼즐세상

사진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포항의 자산과 우리의 미래

포항하면 현재는 포스코로 이름이 바뀐 포항제철과 함께 공업도시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었다. 하지만 막상 포항을 방문하게 되면 거대한 철강공단의 모습보다는 도심에 인접한 아름다운 바다와 산야에 눈길을 주게 된다. 포항은 서울의 1.8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내 굴지의 산업 시설과 아울러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다.

포항에 위치한 세계적인 규모의 제철소인 포스코와 연관 철강공단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지역경제를 크게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포항에는 한국의 칼텍(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이라고 불리는 우수한 공과대학인 포스텍이 있고 캠퍼스 내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포항을 첨단과학과 교육·연구도시로 특징짓는 큰 자산으로서 포항의 미래를 선도할 주요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포항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도심해변과 항만시설들이다. 우선 도심에는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좀 더 교외로 나가면 칠포, 월포 등 아름다운 해수욕장들이 연이어 있다. 푸른 바다, 흰 파도, 모래사장... 그 누구도 감탄해 마지않을 해수욕장들이 도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뿐이라! 죽도어시장과 접해있는 동빈내항도 포항을 차별화시키는 특징적인 도심어항이다.

요즈음 수질오염과 낙후된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잘 개발하고 정비해 나갈 수만 있다면 포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특징지어 줄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

대형 항만시설로는 현재 철강제품을 선적하는 포항항이 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일만 신항은 그 규모나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포항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 포항은 영일만 신항을 통하여 경북의 관문으로서 그리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의 또 다른 특징은 해안도시이면서도 내륙에 높은 산과 산림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연산, 비학산, 침곡산 등 주요 산들이 연이어 있고,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이 조밀히 성장하고, 고란초와 모감주나무의 자생 군락지도 존재한다.

또한 해발 4백미터의 산중에 고랭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옥마을이 있는데, 몇 년 전 새로운 길이 개설되



구 자 문
한동대학교 교수

기 전만하더라도 우체부가 편지배달을 하려면 등산로를 이용했다는 곳이다.

포항은 이와 같이 보기 드문 장점들을 복합적으로 지닌 축복받은 도시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산들을 잘 살려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도 쾌적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포항은 현재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다양한 산업과 국제무역도시로서의 기능을 발전 목표로 삼고,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 첨단과학산업 도시 육성,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 해양

문화관광도시 조성의 “4대 성장엔진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있다.

영일만 신항의 조기 완성, 포항테크노파크의 지속적인 육성, 소재밸리 사업의 추구, 환동해 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등이 이러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또한 “푸른 바다 푸른 꿈 푸른 포항”이라는 포항시의 상징적인 목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녹지공간 확충, 송도·동빈내항 생태복원 등 “U자형 Green Lif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만만하게 수행되기 힘들어 드는 것이 현재의 국내외상황이다.

세계화·정보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기술경쟁력이 문제가 될 것이고, 국내외 지역들과의 연계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무역, 금융 등의 새로운 자본배 현상이 문제가 될 것이고, 환경시설의 설치와 환경친화적 생산을 위한 비용증가 등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항이 지속적인 발전을 영위하려면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하여 하드웨어는 물론 법률, 제도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이기는 하지만, 포항은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훨씬 나은 산업기반, 연구기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자산들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추진의 주체는 정치적인 리더쉽과 함께 민·관·학·시민단체를 망라한 포항 시민들이다.

우리 시민들의 통합된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포항의 값진 자산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며, 차차 국내외적인 어려움의 극복 속에 포항의 풍요로운 미래가 실현될 것이다.

문화체험의 시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자

과거에는 포항의 산과 강, 바다를 그다지 아름답다거나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돛단배(遠浦歸帆)와 모래펄에 내려앉는 기러기(平沙落雁), 죽림산의 맑고 부드러운 바람(竹林淸風)’ 등 포항팔경을 체험하며 내 고장의 참 모습과 아름다운 정취에 흠뻑 빠져들곤 한다.

최근 월드워치 지구환경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태문화 체험관광이 2000년에 들어 26%가 성장했다고 한다. 새로운 문화자본주의 시대에 있어 경제의 선봉장 역할이 관광산업이라는 데에 이의를 두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세계 여행관광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관광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1987년의 1조 9천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3조 7천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08년까지는 7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억 3천만 명으로 세계 전체 노동인구의 10%에 해당되며 향후 10년 동안에 관광분야에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는 1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해 세계 각 국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자원과 문화공간을 재 복원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관광산업의 발달은 야생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유엔총회에서는 지난 2002년을 ‘생태관광의 해’로 정해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살아있는 체험을 상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개발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광개발이 지속 개발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지역 외부의 거대자본을 끌어들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서 병 철
포항YMCA 사무총장

정책결정이나 계획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관광이익은 지역 외부의 투자자들에 의해 지역 밖으로 유출되었고, 오염과 혼잡 그리고 범죄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이 지역에 떠 맡겨졌다. 따라서 관광개발 전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 그리고 관광지 환경 모두의 만족과 발전을 꾀하는 생태관광이 새로운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포항시는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대 성장엔진산업 중에 해양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하이테크 첨단산업 등 여타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생태자원을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을 보존, 재복원함으로써 체험관광 상품을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민들과 함께 적극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양관광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해의 해양문화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는 살아있는 인간적 체험마저 상품화되는 변화의 시대에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산업생산에 몰두한 나머지 포항의 참 모습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지금부터라도 포항의 아름다움과 절경을 찾아내고 잘 가꾸어 글로벌 관광시대에 적합한 ‘신포항 팔경’이란 문화상품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

국가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에 유치

포항에 나노기술집적센터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21세기 신산업을 주도해 나갈 핵심기술인 나노기술(NT)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다. 지난 7월 26일 산업자원부가 2008년까지 1,350억원이 투입될 국책사업인 소재·재료분야 나노기술집적센터를 포항에 건설하기로 하고, 영남권 106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포항공대가 주관기관이 된 경상북도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옆 6,400여평(2만3백여㎡) 부지에 들어설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총 1,350억원(국비 450억원, 지방비 200억원, 민자 700억원)이 투입되어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의 우수한 고급인력과 나노기술의 핵심연구시설인 방사광 가속기 등의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혁신을 주도할 신소재 중심의 세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R&D) 단지로 조성해 나가게 되며, 향후 포항이 중심이 될 경북권이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주도권을 장악해 세계적인 나노기술 R&D(연구개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센터에 국립 암센터 포항공대 연구실 설치

지난 7월 16일 포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국립 암센터 포항공대 연구실 설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3일 포항공대에서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과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이 국립 암센터 포항분실 설치 협약을 체결한 후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내에 국립 암센터 포항공대 연구실을 설치했다. 이 연구실은 이곳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항암제와 신약개발 등 암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비록 건의된 포항분원 설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구분실에서 출발해 향후 암의 연구와 임상실험, 나아가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는 포항분원으로 충분히 승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항 고교 평준화 단계적 실시 확정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 8월 20일 포항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7년 동안이나 끌여오며 논란을 빚었던 포항의 고교 평준화 문제가 일단락 됐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초에 나온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 결과를 존중하여 시내와 읍면지역 학교와의 배정불만 해소,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보완 등 여러 선결 과제들을 해결한 후 포항에도 고교 평준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경상북도 교육청은 평준화 찬·반 대표와 도시, 농촌의 지역대표, 교육전문가, 초·중고 학부모 대표 등 20여명으로 추진 실무반을 구성해 고교 평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오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오천 문덕리로 확정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부지가 남구 오천읍 문덕리 구획정리지구로 최종 확정돼 이전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특히 1만3천50여평의 이전 부지가 이미, 정비되어 있는데다 내년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부분 개통되는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부지 매입 절차와 동시에 실시설계가 가능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7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테크 철강도시 주도할 포스코 파이넥스공장 착공

포스코가 100년 역사의 용광로를 대체할 차세대 혁신 제선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하고, 지난 8월

17일 상용화 설비 공장 건립에 착공했다. 이 파이넥스(FINEX) 공법은 원료에서 바로 덩어리를 만들어 쇳물을 뽑을 수 있는 첨단 신기술로, 공정 단축을 통한 원가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90%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선기술

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6월 만든 연산 60만톤 규모의 파이넥스 시범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한데 자신을 얻어 이번에

2006년말까지 1조3천1백80억원을 들여 연산 1백50만톤 규모의 파이넥스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지난 1992년부터

연구비 4천2백억원을 들여 13년만에 새로운 제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한 조강생산량 세계 5위의 포스코는 앞으로 이 기술을 앞세워 해외공장 건립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파이넥스 공장이 2006년에 완공되면 우리 포항의 4대 성장엔진의 하나인 하이테크 철

강도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기술이전센터(PTTC), 포항테크노파크에 설치

지난 7월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 기술이전 거점구축 운영사업 선정 평가결과 포항테크노파크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오는 2008년까지 4년동안 국비 8억원 등 13억2천만원 등을 들여 포항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중소기업 기술이전지원사업에 나서게 됐다. 한편, 포항기술이전센터(PTTC)가 본격 가동되면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 연구개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술거래시장 창출은 물론 산업계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거점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도 백사장 유실 상가피해 보상 협상 완전 타결

지난 1999년부터 6년간 끌어오던 송도 백사장 유실에 따른 상가피해 보상이 마침내 지난 8월 31일 완전 타결되어 9월중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포스코와 송도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송도백사장 복구 문제는 현재 용역중인 송도종합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는 내년 8월 이후 본격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포항시가 포스코로부터 1백17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위탁받아 송도대책위원회에 전달하면 대책위원회가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금액대로 3백73명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송도 백사장 유실 피해보상 문제가 완전 타결되어 앞으로 시민 역량을 집결해 포항 발전에 가속도를 붙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오는 12월 7일 개통

포항과 대구를 잇는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가 오는 12월 7일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98년 4월 첫 삽을 뜬 후 오는 12월 7일까지 6년 8개월만에 완공되는 이 고속도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서 북구 흥해읍 대련IC까지 총 길이 68.42km에, 총 공사비가 1조9천950억원이 투입되었다. 향후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중전 1시간 2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어 포항과 대구간 40분 거리의 동일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한, 연간 약 1천27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주5일 근무제와 맞물려 대구, 구미 등 내륙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고속도로가 영일만 신항과 연결되며 경북 동해안 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학정신 꽃피웠던 지방교육의 요체(要諦) 지역의 향교를 찾아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인 향교(鄕校)는 서당이나 서원과 함께 유학정신을 꽃피웠던 지방교육의 요체였다.

지방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치됐던 향교는 오늘날의 중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학교였으며, 교궁(校宮) 또는 재궁(齋宮)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국도(國都)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학이 설치된 것은 고려 인종 5년(1127년)에 인종이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향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때부터 유학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겠다는 방침 아래 설치되기 시작한 향교는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남으로는 최남단의 제주도, 북쪽으로는 갑산까지 설치될 만큼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본격적인 유학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중등교육기관으로 지방에 설립했던 것이 바로 향교이고, 한양에 세웠던 것이 4학이다.

태조 1년(1392년)에 각 도의 안렴사(按廉使)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써 지방관 고과(考課)의 기준을 삼을 정도로 강력하게 진흥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종 때는 모든 군·현(郡縣)에 향교가 설치되었다. 향교에는 일반적으로 유생들이 학문을 배우는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맨 앞에 배치되고, 그 좌우로 지금 기숙사와 같이 유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동재와 서재가 마주했다. 명륜당 뒤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 봉안과 제례를 위한 대성전과 대성전 좌우에 동무, 서무가 마주하고 있다. 이는 향교가 제례와 교육기능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향교에서는 소학, 사서, 오경이 중요한 학과였으며, 그 외에 군사록, 제사(諸史)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 고을 수령과 관찰사가 향교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도 있

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향교가 쇠퇴하자 사람양반이 중심이 되어 세우기 시작한 사학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이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향교는 제사기능 위주로 운영되어 오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과거 제도의 폐지와 함께 교육기능을 완전 상실하고 단지 문묘에 대한 제사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지역에 향교가 보급된 것은 조선초기 무렵.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창건된 흥해향교와 청하향교, 연일향교 그리고 태종 5년(1405년)에 창건된 장기향교가 있다. 우리 지역의 향교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흥해향교(興海鄕校)

흥해향교는 포항시내에서 영덕방향으로 가는 7번 국도변의 향교산에 있으며, 조선의 건국 초기인 태조 7년(1398년)에 유교의 뿌리를 찾아 교육하는 오늘날의 중등교육과정(중설위)으로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나, 연혁에 관한 자료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창건연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건물은 6.25전쟁때 소실되기 전까지는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서재, 동재, 수복실, 태화루 등을 갖춘 총



99칸 규모였으나, 6.25전쟁때 대성전과 동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소실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에 명륜당, 수복실을 그리고 뒤이어, 동무, 서무를 새로 지었으며, 1996년에는 태화루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지어 어느 정도 옛 모습을 되찾았다.

향교 주위에는 기념물 제21호인 50년에서 100여년 된 이팝나무 30여 그루가 집단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매년 늦은 봄이면 흰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장관을 이룬다. 또 가을이면 보랏빛 열매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청하향교(淸河鄕校)

청하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북구 청하면 고현리에서 창건하였다가 오늘날의 서정1리(옛 금정리)로 옮겼으며, 숙종 39년(1713년) 현감 노세환이 현청이 있던 현



재의 덕성리 190번지로 옮겨 공사에 착수한 후, 숙종 42년인 1716년에 대성전, 명륜당, 동재, 2층 천화루, 신삼문, 열호재 등을 완성하여 준공하였다.

이 청하향교는 불행하게도 70여년전에 대성전(大成殿) 서편 열호재(悅乎齋)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6.25전쟁때는 향교 뒤 성지 나무숲에 공산군 탱크 부대가 주둔하는 바람에 미군의 함포사격을 받아 천화루(闡化樓)가 파손되었으나 1964년에 명륜당과 함께 중건하였고, 연무정(練武亭)도 이때 불타 없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향교 뜰에 연무정비 반쪽과 현감 임택고열호제창건비, 현감 노세환흥학비(盧世煥興學碑)가 그리고 향교 앞에 6.25전쟁 이후 새로 만든 하마비(下馬碑)가 서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봄, 가을 두 차례 제사를 지냈으나 요즘에는 8월 중 하루 날을 잡아서 인근의 여러 문중이 참여하여 제사(향사)를 지내고 있다.

연일향교(延日鄕校)

남구 효자동 407에 있는 연일향교는 조선 태조(太祖) 7년(1398년)에 현재 남구 장흥동(長興洞)에 창건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연혁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어 숙종(肅宗)때 대송면 성좌리에 중창(重創)하였다가, 고종 8년(1871년)에 현감 원우상(元禹常)에 의하여 현 위치로 옮겨 새로 지었다고 한다. 일제(日帝)때는 명륜학교로 사용된 바 있고 1983년 2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포항시에 편입되어 보존되고 있다.



대성전(大成殿)에는 중국의 5성현(五聖賢)과 송조의 2성현 우리 나라 현철(賢哲) 18분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 하루 날을 잡아서 향제(享祭)를 올리고 있다. 특히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맛배지붕·겹처마의 집으로 주심포계(柱心包系) 외일출목(外一出目)의 조선후기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로, 1985년 8월 경북문화재 자료 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장기향교(長鬚鄕校)

남구 장기면 읍내리 동악산(해발 252.5m) 장기읍성 부근에 있는 장기향교는 조선 태종 5년(1405년)에 명장리(明章里)에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때 병화로 소실되어 선조 33년(1600)에 중건했다가, 정조 9년(1785) 지방의 유교의 정신과 학문을 부흥하기 위해 현감 황익진이 오늘날의 장기초등학교 동편에 옮겨 새로 지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문경·서극인·이대임·이눌 등이 향교에 봉인해 오던 위패를 용암석굴에 권안시키고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건물은 소실되었으나 위패만은 무사할 수 있었으며, 새로 옮겨 지을 때는 덕계 임재화가 대대로



살던 자기 집터를 회사하여 향교를 옮겨 짓게 했다고 한다.

그 후 1931년에 군수 김영수가 향사들과 함께 읍성내에 있던 구 객관을 수리하여 명륜당을 만들고 대성전을 새로 건립하여 위패를 옮겨 안치하였다.

장기향교는 인근의 여러 문중에서 참가하여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제사(향사)를 지내 오다가, 최근에 와서 8월중 하루 날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현재 향교에는 대성전·명륜당·신삼문·동재·장경각·대문 등의 건물이 보존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향교 앞의 하마비를 새로 만들어 세워 놓았다.

※ 이 글은 포항시사 등을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흥해읍성 興海邑城

오늘날 비록 성터의 흔적조차 찾아 볼 길이 없지만, 북구 흥해읍 성내리 로타리 북편 부근에 축성되어 있었다는 흥해읍성(興海邑城).



그 역사적 기록을 더듬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흥해읍성은 고려 현종 2년(1011년) 때 토성으로 처음 쌓았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380여년이 지나는 동안 본래의 모습을 잃고 토성의 취약점이 드러났으며, 고려말 충정왕 2년(1350년)부터 왜구의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되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 공양왕 1년(1389년)에 그 자리에 새로이 돌로 성첩(城堞)을 쌓았다고 한다.

이 때 흥해읍성의 규모는 석축으로 둘레가 1,493척이고 높이가 13척이었으며, 성안에 우물

이 3곳이나 있었고, 남북에 2개의 문(門)을 두었다고 한다. 흥해읍성의 축성과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2의 권근(權近)의 흥해읍성기문(興海邑城記文)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척이나 흥미롭기 그지없다.

권근은 흥해읍성기문에서 “물고기와 소금과 땅이 기름졌던 흥해군이 왜적의 침입으로 점점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변해 갔을 뿐만 아니라, 고려 우왕 6년(1380년, 경신년) 여름 왜적의 침입으로 고을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학살과 약탈을 당하여 피폐해 졌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그 후 고려 우왕 13년(정묘년, 1387)에 이르러 국가에서 군 남쪽에 병선을 배치하여 적들이 오는 길을 막은 연후에야 떠돌던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이는 두모포(豆毛浦), 오늘날 두호동에 동해안 방어의 해군기지 역할을 한 통양포수군만호진 설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 현종 2년에 축성한 토성이 378년이 지나면서 성지(城址)의 견고함을 잃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김제(金堤) 조우량(趙友良)이 고을 원이 되어 이 곳에 와서 고려 공양왕 1년(1389년) 8월에 새로이 축성을 쌓기 시작했으며, 조우량(趙友良)의 뒤를 이어 만호 백공이 원이 되어 더욱 견고하게 축성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흥해 주민들은 1390년 봄에 이곳에 귀향온 여말(麗末)의 학자 권근에게 훌륭한 조후의 덕을 기리는 글을 남겨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권근이 “맹자도 지리가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명구(名句)를 들어 인화의 큰 뜻을 밝힌 조우량의 공덕을 흥해읍성기문에 기록하였고, 이를 후대의 귀감으로 삼게 했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흥해지역 주민들을 지켜주던 흥해읍성의 흔적이란 찾아볼 길이 없다. 다만 흥해읍 성내리 영일민속박물관 제2전시실 바로 뒷편 담장 아래에 성을 쌓았던 큰 돌 수십 개가 남아 길이 30여m, 높이 1~1.5m 정도의 민가 담장 석축에 이용되고 있어 진한 아쉬움으로 남을 뿐이다.

※ 이 글은 포항시사 등을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가을 _ Oil on Canvas



김 두 호

화가

한국미술협회, 예우회, 포항구상작가회, 포항미술작가회 회원
포항일요화가회 지도교사, 선린대학 시각 디자인과 출강

개인전 5회

한국미술협회전, 경북미술협회전, 포항구상회원전
포항미술작가회전, 미목회전, 향토작가회전 등 그룹전 다수

중앙미술관전 외 초대전 다수

흙과 불 속에서

도공의 혼(魂)을 불태우는 도예가 이태영씨

흙과 불의 삶 속에서 도공(陶工)의 혼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젊은 도예가 이태영(李泰永 · 42세)씨. 자연에 파묻혀 오직 한길 도자기 연구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리 흔하지 않은 지역의 자랑스런 예술인 가운데 한사람이다.

북구 청하면 청계1리에 있는 그의 삶의 터전이자 작업장인 약 90평 정도의 '청하도원'. 이 곳은 이씨와 그의

처 임미희(38세)씨, 7살 난 아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담쟁이덩굴이 지붕을 덮고 있는 청하도원 앞에는 약

200년된 팽나무가 넉넉한 그늘을 만들고 있으며, 이 곳을 찾는 이의 쉼터가 되고 있다. 마당에 있는 7년생 목련과 벚나무, 그리고 감나무 한 그루가 자연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이씨의 도자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을 가장 경계한다. “예술은 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의 작품세계는 한마디로 ‘미와 용의 세계’다. “미와 용의 세계가 잘 어우러졌을 때만 최고의 작품이 탄생한다”고 말하는 이씨.

밥그릇, 접시, 컵 등 실용적인 것에 아름다움 즉, 예술성을 가미하여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켜 내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예술세계다.

그는 밥그릇, 술잔 하나를 만드는데도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온갖 정성과 혼을 다 쏟아 부어 넣는다. 막사발 하나에도 용도에 맞게 음각을 하고 색상을 넣으며, 제작에 온 힘을 다 쏟는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흔히 예술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한다. 그러나 이씨는 이런 정형성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그만의 도자기 예술세계를 추구한다.

그의 도자기는 단순한 장식용이나 눈요기용이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용성에 아름다움이



가미된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도자기를 만든다. ‘실용성’이 이씨의 도자기 예술의 모태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예작가들이 조형물 위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씨는 우리 생활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독특한 작업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미적 기능이 뛰어난 그만의 자기를 만들어 낸다.

이씨의 도자기는 반듯한 둥근 원형이 아니라, 입술선을 넣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만드는 도자기다. 되도록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구워내는 둥근자기, 각각의 개성을 지닌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가 다른 도예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흙에 돌이 섞여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모가 나면 모가 난 그대로 하나의 작품이 되어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씨의 도자기다.

또 형태가 완성된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재를 뒤집어씌운 후 구워내는 자연유 장작가마 기법을 구사하기도 하고, 유약도 바르지 않은 채 거친 느낌이 있는 그대로의 작품을 완성하기도 한다.

술잔, 찻잔, 밥그릇, 접시류 등 일상 생활에 쓰임새가 있는 도자기 작품들을 주로 만드는 그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각 작업 등을 마친 후 완성하며, 한 점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전시장에서 판매할 때나 공방을 방문하여 구입할 때에도 별다른 차이 없이 받는단다.

북구 청하면 청계1리에서 1963년에 태어난 이씨는 17살에 부산디자인학교에 들어가면서 공예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2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듬해, 세계 각국의 도자기가 잘 보존되어 있고, 오브제와 기, 산업도자기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일본에서 각자의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겠다는 각오로 일본 5대 예술대학 중 하나인 나고야 일본 아이치(愛知) 현립 예술대학 대학원으로 유학한 이씨는 도예를 전공하면서 본격적인 도자기 공예에 깊이 빠져들었고, 여기서, 도예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현립 예술대학 최초의 유학생이었다는 이씨는 일본에 남아서 활동할 각오도 했었지만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6년 6월 귀국하여 ‘청하도원’을 짓고 가을부터 작업에 몰두했다. 97년 가을 귀국 후 첫 개인전을 대백갤러리에서 열었고, 그 후 그룹전 3회, 개인전 9회를 개최하며 그의 진면목을 꾸준히 보여 왔다.

17살때 도공(陶工)의 길로 접어들어 25년째인 이태영씨. 그는 대학 재학시절인 1991년 대한민국 공예대전,

서울 현대도예전 입선, 부산공예대전 입선 등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씨의 도자기 인생은 우리 나라에서보다도 일본에서 더 빛을 발했다. 대학원 재학시절인 1995년 일본 도자기협회로부터 ‘촉망받는 30대 젊은 작가 2명’에 선정되어 일찍부터 그 실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1996년 2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씨는 생애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완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일본 공예가들도 가입하기 어렵다는 일본전통공예회 모임에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회원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일본 전통공예가 공식적으로 이씨의 실력을 인정한 증거였으며, 당시 일본공예가들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뿐만이 아니다. 일본전통공예전 입선(93년, 95년)을 비롯해, 일본동해전통공예전 장려상 수상(94년, 95년)과 입선(96년), 일본일청현대도예전 입선(95년), 백영회전(나고야 마루에이 백화점, 94~98년) 등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귀국 후에도 국내 그룹전과 개인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시회도 꾸준히 열어 왔으며, 1999년에는 일본 SOGO 백화점에서 포항과 일본 후쿠야마 우호도시 10주년 기념전을 혼자 치러 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 1주일에 8시간 정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공예과에 출강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도자기 기술의 발전과 후진 양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다.

강의료와 도자기 작품 판매수익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전시회를 열고 작품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 가기에 빠듯한 형편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만 예술성을 고집하며, 우리나라 도자기 공예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이씨는 요즘 오카리나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오카리나. 이탈리아어로 ‘거위 새끼’, 우리말로 ‘흙피리’라 불리는 오카리나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는 도자기를 만드는 흙으로 빚어 구멍을 뚫은 후 가마로 구워낸 거위 새끼 모양의 폐관악기인 오카리나 제작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자부한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연주 실력도 겸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씨는 그의 작업장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오카리나 제작 교실’을 열 정도로 오카리나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자원봉사 문화가 햇살처럼 번져 가는 포항을 꿈꾸는 이상섭씨

자원봉사 문화가 햇살처럼 번져 가는 우리나라 제일의 자원봉사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포항종합자원봉사센터 이상섭씨(40세).

포항 본토박이 출신인 이상섭씨는 지난 2001년 1월 포항종합자원봉사센터에 몸담은 후,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줄곧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에 서서 오직

불우한 소외계층들과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며, 작은 사랑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오고 있는 인물이다.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 고민하던 중 9년간 다니던 직장도 미련 없이 그만두고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인생 길을 개척해 보겠다는 각오로 이 곳의 문을 두드렸다는 이씨는 “자원봉사 일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수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일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그를 보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변모시켰다”며, 그 자신도 한 달에 한번씩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펼치고 있다고 한다.

포항의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작은사랑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꽃피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이상섭씨. 그는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포항의 자원봉사활동의 핵심인물로, 독창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기획하며, 포항의 자원봉사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이 곳에 몸담기 전까지 포항철강공단에 있는 동방산업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씨는 포항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물론 총무와 기획을 총괄하는 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포항의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해 왔다. 뿐만이 아니라, 매년 10월 열리는 자원봉사대축제를 혼자서 직접 기획하고 진두지휘하며, 포항의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시켜 오는데 열정을 쏟아 왔다.



그는 요즘 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의 기획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름다운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많은 청소년들이 산발적으로 복지시설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원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오히려 수혜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마땅한 활동처가 없다는 것을 고심해 오다가 기획하게 된 것이며, 자원봉사활동에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포부로 가득 차 있다. 이 사업은 가족과 함께, 주변에서 편리한 시간에 쉽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획했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가까운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촛불사랑회(회장 박근찬)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센터에서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아침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나가면 부모들도 좋아하고 이웃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가 크다.

그리고 긴급 수해복구 등에 긴급한 자원봉사가 가능한 ‘긴급자원봉사단’ 구성도 기획중이며,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 그리고 즉각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는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지를 해결해 주는 원스톱(One Stop)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중재, 조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과 활동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곳이다.

또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교육을 비롯해, 자원봉사대축제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참여 통로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하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 지난해와 올 여름에 칠포, 월포해수욕장에서 피서 온 현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던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동의 총결산 프로그램인 포항사랑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의욕부터 앞서고, 자기 직분에 맞는 자원봉사를 골라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원봉사는 누구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상섭 부장은 “남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 준다는 우월적 자세나 마음보다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다같이 함께 하겠다는 자원봉사 자세

와 마음가짐 이야말로 자원봉사의 효과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한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족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 등 자원봉사자를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다.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별 고유 특성에 맞게 백화점식 자원봉사가 아닌 브랜드를 살린 특성화된 자원봉사로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이 정립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햇살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시간과 노력, 정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라는 이씨는 자원봉사는 무엇보다도 즐거워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쉽게 접근해서 쉽게 할 수 있고, 자연스럽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잘 부합하는 자원봉사 활동처를 연결시켜 주어 고맙다는 연락을 받거나 지속적인 연결로 수혜를 입은 활동처에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씨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없이 소중한 일이지만 만약 이 곳 일을 그만 두게 된다면, 해외로 나가 봉사활동을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친다.

그 동안 쌓은 경험이나 축적된 노하우,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란다.

그 지역의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 가난이 대물림되고 도덕성과 인간성이 상실되어 험악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인간성 회복을 위해 자원봉사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탕에 깔려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작은 일에 만족하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지역 최고의 자원봉사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씨는 올해부터 위덕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면서 자원봉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가 원인이 되어 이직하는 많은 직원들을 보고 “사명감과 소명의식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느꼈다는 이씨는 생계와 직결된 직원들의 보수만은 하루 빨리 현실화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직원들이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남다른 이상섭씨. 전국 제일의 자원봉사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굳은 각오가 아침이슬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

대구 · 경북의 미래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포항 발전전략





지난 7월 민선3기 2주년을 맞은 우리 포항시는 어려운 가운데도 2010년에 인구 80만명, 소득 2만불 이상 달성의 광역도시 포항을 건설하여 '대구·경북의 미래, 원동에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단기효과 위주의 시책보다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위해 안목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시정을 중점 추진에 왔다.

포항 4일반산업단지 조성 착공, 영일만 신항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 컨테이너 부두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현대중공업 선박 블록공장과,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 등이 바로 지역경제 도약의 시동을 건 것들이었다.

특히, 우리시는 4대 성장엔진산업 육성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첨단과학도시를 만들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창출하고, 나아가 U자형 Green Life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수준높은 삶을 향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항사랑운동을 전개하여 포항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선진 시민상을 구현하여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을 건설에 나간다는 21세기의 비전(Vision)을 열어 가는데 구슬땀을 흘려 왔다.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만들어 기업과 사람 그리고 돈이 모여드는 도시,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변모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이 향상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펼쳐 오기도 했다.



지난 호에 이어 민선3기 2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시가 최대 역점을 두고 펼쳐갈 대구·경북의 미래, 원동에 경제중심도시 포항 발전전략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시는 민선3기 2주년을 맞아 '제2의 영일만 기적 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0년에 인구 80만명, 소득 2만불 이상 달성의 광역도시 포항을 건설하여 '대구·경북의 미래, 원동에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

을 마련하고 동시에,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을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잘 사는 포항',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선진 시민상 구현으로 '정직한 시민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4대 성장엔진산업 육성으로 '잘사는 포항' 건설

그 동안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과 벤처동의 준공을 비롯해, 국내 최대의 생명공학연구센터와 차세대 바이오 환경기술연구센터의 개소,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지능로봇연구소 건립,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첨단과학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호미곶 해맞이축제,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 불꽃축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개최 등으로 문화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부각시켰으며, 최근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에 현대중공업의 선박용 블록(Block) 공장을 건설키로 하는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영일만 신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오는 10월경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등 명실공히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했다.

앞으로 포항4일반산업단지 완공, 신소재 산업 육성 등 철강산업의 디지털화, 포항소재밸리 R&D 특구 지정, 지식기반 집적지구 조성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건설하여 첨단과학 한국의 중심지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건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개통과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의 기업도시 건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영일만 신항을 대구·경북의 관문이자, 해양진출의 교두보로 육성하고 나아가, 환동해 물류중심지기로 중점 개발하여 포항이 대구·경북의 미래로 환동해 물류와 경제권의 중심도시, 정부의 U자형 국토 개발거점,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다.



U자형 Green-Life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건강한 시민레저 공간을 제공하고, 특화된 해양·문화관광지 조성으로 사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꽃·나무·숲이 어우러진 지역간 격차없는 인간중심의 쾌적한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산강 지역에 포항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도심지 담장 허물기 사업의 확대,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심권을 녹색벨트로 연결하며, 읍면지역에 농촌 전통테마 마을과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포항시 전역을 녹색벨트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연일지구 테마파크·도심철도 이설지역에 웰빙(Well-being)거리를 만들고, 송도·동빈 내항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공단지구에 녹색벨트 조성, 제내지구 소공원 조성 등 지역민들의 생활을 공해와 소음으로부터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사랑 운동으로 '정직한 시민 사회' 풍토 조성

포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원봉사 활성화,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선진 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직한 시민'을 주개념으로 하는 포항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선진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소외, 갈등, 도덕적 해이 등 이완된 지역정서를 포항비전과 시민화합으로 극복하고, 경제적 풍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맞은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정직한 포항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올해 포항시민의 날 제정과 해병대 전역 장병들의 "제2의 고향 갖기 운동" 추진,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서민복지 선진도시를 건설,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작은 사랑 나눔의 가교 역할을 하는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선진도시에 걸맞은 시민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말여가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대축제 개최,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의 역군인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해 나가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 운영, 여성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여성 취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이 존경받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며,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이 없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선진복지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포항은 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이후 인구 80만명 내외의 광역도시 건설과 소득 2만불 이상 달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원동에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질서는 포항, 이름다운 도시, 정직한 시민이 모여 사는 전국 최고의 첨단과학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가을꽃 코스모스 향기에 흠뻑

60, '70년대 까까머리 교복 시절, "...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징그럽게(?) 들었던 가수 김상희가 부른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래가 문득 생각난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을 따라 다정하게 걸어가는 연인의 표정에서 행복감이 질로 묻어 나는 것 같다.

꿈 많던 학창시절,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신작로를 건다보면 코스모스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지 몸을 흔들며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그때 그 가슴 찡릿하던 코스모스 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때는 왜 그렇게 길가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 놓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아침이슬에 젖은 코스모스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갔고, 저녁이면 노을지던 강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그렇게 이름더울 수가 없었다.

주로 9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오색 현란한 꽃송이들이 온 들판을 물들이고, 그 형태가 벚꽃과 비슷하다 하여, 가을 벚꽃이라 부르기도 하는 코스모스. 요즘은 계절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피기는 하지만, 가을 문턱에서 피어난 코스모스는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임에 분명하다. 가을꽃 코스모스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명소를 찾아 함께 떠나보자.



기북면 소재지 진입도로, 코스모스 활짝 피

비록 옛날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신작로나 들길만은 못해도 우리지역에서 코스모스 꽃길로 기북면 소재지 진입도로 만한 곳은 없다.

지난 2001년에 기북면에서 자생조직단체와 공공근로자들이 힘을 모아 조성해 놓은 기북면 대곡지구 3km구간 코스모스 꽃길은 가을 코스모스 향기에 흠뻑 취할 만한 명소중의 명소다.

포항 시내에서 북구 용흥동 연화재를 넘어 안동으로 연결되는 31번 국도를 따라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달리면 북구 기계면 소재지가 나온다.

여기서 다시 우회도로를 따라 5km 정도 더 가다보면 우측으로 기북면 진입도로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921번 지방도로 기북면 소재지까지 거리는 약 5km 정도. 들판 한 가운데 집단 촌락의 형태로 자리잡은 기북면 소재지까지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곳이 가을철이면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곳이다.

기북면에 접어들어 조금 가다보면 초가을부터 양쪽 도로변에 단국화와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별천지를 연상케 한다. 이곳은 해가 갈수록 코스모스 구경이나 사진촬영을 위해 찾는 이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다. 주말이나 휴일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둘러보기에 더 없이 좋은 코스다. 어린 자녀들의 자연학습 체험에 그만이다.

홍해 곡강천 둔치에도 가을꽃 코스모스 만발해



가을꽃 코스모스가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달 초순부터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던 곳. 바로 북구 홍해읍 홍안리 곡강천 둔치다.

이 곳 곡강천 둔치에는 한달여 전부터 코스모스가 만개하기 시작해 세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곳은 포항시가 올 봄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둔치 1만여평을 정리하여 씨앗을 뿌리고 정성 들여 가꾸어 온 대단위의 코스모스 단지나 다름없다.

이 곳은 북구 홍해읍 소재지에서 홍해초등학교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빠지는 농로를 따라 약 2km쯤 가다보면 나온다. 또 따른 길은 북구 홍해읍 용천리 칠포삼거리에서 칠포해수욕장 방향으로 가다가 용한리 마을에 도착하기 전 우측으로 가는 농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월교가 나

오는데, 이곳 세월교 하류쪽 곡강천 둔치가 코스모스가 만개한 단지다. 비록 포항시가 인공으로 조성한 코스모스 단지이기는 하나, 1만여평 규모의 하천 둔치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 세인들의 발길을 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도 포항시에서는 지역의 수해 상습지에 코스모스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이 곳 말고도 코스모스 군락지는 많다. 특히 북구 기계면에 소재한 기계천은 몇 해전까지만 해도 지역 최고의 코스모스 명소로 명성을 떨치며, 해마다 가을철이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곤 했으나, 몇 해 전 장마로 인한 세찬 물살에 대부분 휩쓸려 내려가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봉좌산(鳳座山)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북구 기계면 봉계리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봉좌산(해발 589m 또는 600m라고도 한다)은 포항 시내에서 가깝고 아담하며, 가족 산행에 적합해 계절에 관계없이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드는 지역의 명산 가운데 하나다.

정상에 봉좌암(鳳座岩)이라는 봉황 모양의 바위가 있는 봉좌산(鳳座山)은 한티재쪽에서 내려오는 낙동정맥이 운주산맥을 비껴 지나 이리재로 내려서다가는 다시 도덕산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서 약 0.7km 정도 벗어나 있다. 이 산은 등산객들에 의해 여러 코스가 개발되어 있지만 보통 기계면 봉계리 치동마을의 봉좌산 기도원을 산행 들머리로 삼는다.

가장 짧은 산행코스는 치동마을 봉좌산기도원에서 산행을 시작해 계류를 건너 샘터를 지나 지능선, 그리고 주능선 올라서 동쪽으로 넉넉잡아 약 15분 정도가면 봉좌산 정상인 봉좌암에 오를 수 있는 코스다. 오르는 데만 약 1시간 10분~20분 정도 소요된다.

특이하게 산세가 빼어나거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코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산길이 뚜렷해 부담없이 오를 수 있어 산행코스로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특히, 인적이 드문 호젓한 산길을 붉그스레하게 물든 가을단풍을 벗삼아 산행을 한다면 하루 산행코스로는 최적의 산행지다. 산을 즐겨 찾는 산꾼들은 흔히 자옥산~도덕산~봉좌산~어래산을 잇는 아기자기한 능선

코스를 최고의 등산코스로 꼽기도 한다.

이 곳을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승용차로 간다면 포항 시내에서 북구 용흥동 연화재를 넘어 안동으로 연결되는 31번 국도를 따라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달리면 북구 기계면 소재지에 다다른다.

여기서 기계면 우회도로를 따라 약 4~5분 정도 가다 보면 왼쪽으로 기계천을 건너는 고지교(高旨橋)가 놓여져 있다. 고지교 입구에는 '봉좌산기도원'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서 고지교를 건너 '봉계리, 봉좌산 기도원, 포스코 협력회사 수련원'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여 기계면 봉계마을로 진입한 후, 지금은 포스코 협력회사 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폐교가 된 기남초등학교를 지나 2.5km 정도 올라가면 봉좌산 기도원에 도착한다. 고지교에서 봉좌산기도원까지는 약 4km 정도의 거리다. 버스는 기계에서 봉계리로 가는 시내버스가 1일 4회(06:30, 09:40, 14:40, 17:10) 정도 운행된다.

북구 기계면 봉계1리 치동마을 입구를 조금 지나 봉좌산 기도원까지 가는 좁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밤송이가 짙



산행 들머리인 봉계리에서 올라다 본 봉좌산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암봉으로 이루어진 봉좌산 정상이다.

작 입을 벌리고 있어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난다.

봉좌산 북쪽 골짜기에 3동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는 봉좌산 기도원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봉좌산 정상에 거대한 암봉이 지척에 보인다.

본격적인 가을 산행의 출발점은 기도원을 들어서기 직전 왼쪽으로 나 있는 등산로다. 최근 비로 등산로가 많이 패여 흙은 쓸려 내려가고 앙상하게 크고 작은 돌만 남았다. 처음 시작은 비교적 완만하다.

등산로 주변에는 철덩굴이 우거지고 활엽수들은 서서히 붉그스레하고 곱게 물들기 시작했다. 수도원에서 약 10분 정도 오르면 작은 너덜지대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약 10분 정도가면 오랜 기간 걸쳐 산을 오르내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 놓은 높이 2m가 넘는 돌탑 하나가 나오는데 무척이나 인상 깊다.

그리고 잠시후 작은 계류를 건너게 되고 다시 10여분 정도 굽이굽이 몇 굽이를 돌고 돌아서 오르면 작은 샘이 있는 곳에 닿는다. 비가 많이 와서 인지 수량도 풍부하고 시원해 타는 목을 축이기에 충분하다.

샘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능선에 도달한다. 상수리나무 등 활엽수가 뺨뺨한 숲속 터널 길을 걷다보면 마치 깊은 나무 바다 속을 헤집고 가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오르내렸는지 산길에 반들 반들 닳여져 있고 잔돌들은 별거벗은 모습이다. 여기서 왼쪽으로 주능선을 향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르게 이어지는 길을 오르다 보면 전망 좋은 바위 하나가 있고 이 곳에서 보면 북서쪽 운주산으로 이어지는 주능선과 운주산 정상이 완연하다. 뿐만 아니다. 막바지 개통준비에 한창인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가 위용을 드러낸다. 약 20분 정도 오르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을 가르는 주능선에 다다른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 약 15분 정도 가면 거대한 암봉으로 이루어진 봉좌산 정상 봉좌암을 발아래 두게 된다. 거대한 암봉으로 이루어진 봉좌암 정상부의 북쪽 아래는 약 30m는 족히 될 바위절벽이다.

정상에는 지난 1998년 12월에 포항북구의용소방대 장친목회에서 스텐레스로 설치한 자연보호 및 정상 표시 이정표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여기에는 봉좌산의 높이를 해발 600m로 기록해 놓고 있다. 정상에서의 탁트인 조망은 가히 으뜸이라 할 만하다. 정상에 거대한 암봉에 서면 그야말로 사방팔방이 시원하게 뚫렸고, 거칠게 없다.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봉우리들이 순한 양처럼 다소곳이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린다.



북서쪽으로 웅장하면서도 힘찬 산 기운 넘쳐나는 거봉 운주산이, 건너편 남서쪽으로는 도덕산이 지척의 거리에 있고, 저멀리 자옥산(해발 562m)까지 선명하게 눈 안으로 빨려 든다. 동쪽으로는 기계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기북면 소재지까지, 그리고 바둑판 같이 잘 정리된 시원하게 펼쳐진 기계평야가 한 눈에 들어온다.

어디 그 뿐인가. 동남쪽 저 멀리로는 포항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까지 지역의 모습이 시야에 선명하게 잡힌다. 북쪽 아래로는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시원스럽게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지런히 도열해 있는 교각들이 눈 안에 쏙 들어온다.

봉좌암에서 동쪽 바로 아래로 내려다보면 동자방마을이 손 끝에 닿을 것만 같다. 봉좌산 정상에서 동자방마을에서 내려가는 호젓한 오솔길도 있지만 흔적이 희미하다. 그러나 이 코스로 하산하려면 계곡쪽으로 내려서서 좁은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호젓한 옛길의 흔적을 더듬으며 하산해야 한다. 이 코스로 하산하다 보면 금방 편안하게 동자방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약 30가구 정도가 모여 생활하고 있는 봉계리 동자방마을은 봉좌산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로, 이 마을에서 봉좌산 정상의 거대한 암봉인 봉좌암을 쳐다보면 마치 동자(童子)같이 보인다고 해서 동자방(童子房·동지방)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재미난 마을 지명 유래가 전해 온다.

특히, 산행 들머리 봉계리 치동마을에 이르기 전 계류 옆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재자료 267호인 문옥정(噴玉亭)은 조선 숙종대 성균관 생원이며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추정된 돈옹공(敦翁公) 김계영의 덕업을 찬양하기 위하여 순조 20년(1820) 3월에 문중에서 건립하였으며, 용계정사(龍溪精舍)라고도 부르는데, 지방에선 보기 드문 특이한 구조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빼 놓지 말고 둘러보기를 권한다.

명품, 죽장 山 사과



흔히들 '죽장'하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져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산간 오지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죽장은 넉넉한 인심뿐만 아니라, 하옥계곡이며, 산사과, 입암서원, 산남의진발상기념비 등 자랑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장이다.

특히, '죽장 산사과'는 명품중의 명품이다. 60~70년대 까지만 해도 사과하면 대구를 연상할 정도로 대구능금을 으뜸으로 쳤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품종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전국 곳곳에서 이름도 들

어보지 못한 특색있는 수많은 사과가 생산되자 그것도 옛말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따라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명품 사과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 때 명품의 반열에 올려 놓은 사과가 바로 북구 죽장면의 '죽장 산사과'다.

죽장 산사과는 일조량이 많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산간지대의 산비탈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죽장 산사과'인 것이다.

죽장 산사과를 제대로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다른 사과를 찾지 않는다고 한다. 입으로 큼직하게 한입을 깨무는 순간 입안에 녹아 내리는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죽장 산사과만의 독특한 맛 때문이다.

지난 2000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경북 우수 농산물'로 지정된 죽장 산사과는 당도가 높기로 특히 유명하다. 죽장 산사과의 당도는 평균 14~18브릭스(brix) 정도다. 설탕을 물에 녹여서 당도를 측정했을 때 당도가 20브릭스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죽장산사과의 당도는 거의 설탕물 수준으로 달기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당도 뿐만이 아니다. 과육의 경도도 돌처럼 단단하고 무거워 여느 사과와는 확



◀ 5천평 이상의 사과농사를 지으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농 손대원(54세 · 죽장면 상옥1리 1061번지)씨가 추석전 출하를 앞두고 붉게 익어가고 있는 사과를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연히 차이가 나는 명품 사과다. 과육이 단단하다는 것은 수분이 쉽게 증발되지 않아 저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바로 죽장산사과가 해발 450미터에서 650미터의 산간지대 산비탈에서 대부분 재배되기 때문. 또한 포항에서 가장 오지인 죽장면은 산세가 험하면서도 토질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사과가 익기 시작하는 가을철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평균 10도 이상 나 사과재배의 최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근래에 와서 죽장 산사과가 맛 좋기로 소문나 수확기에 접어드는 초가을부터 연중 내내 죽장 산사과를 찾는 사람들이 죽장지역을 찾고 있다.

특히, 죽장 산사과는 매년 계통출하량의 대부분이 제주도농협이나 울산 중앙청과 등으로 출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올 봄까지 3회에 걸쳐 45톤을 대만에 수출하여 품질인증 농산물 전문매장에서 판매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그 품질과 맛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죽장면 지역의 사과 재배 농가수는 약 250여 농가이며, 사과 재배면적만 약 93ha 정도다. 그리고 연간 3천5백여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내 최대의 사과 생산지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죽장 산사과 생산량의 약 80%가 제주도농협을 통해 제주지역에 출하되고 나머지 20% 정도가 울산, 부산 등지로 대부분 팔려나가고 있어 정작 포항

이나 경주, 대구 등에서는 죽장 산사과 맛을 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더더욱 지난해부터 대만으로 수출까지 하게 되어 죽장 산사과를 시중에서 만나 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성 싶다.

그래도 죽장 산사과 맛을 꼭 보려면 포항 시내에서 북구 용흥동 연화재를 넘어 안동으로 연결되는 31번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40~50분 거리에 있는 죽장면 지역을 찾아가 산지나 죽장사과영농조합법원에서 직접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문의 ☎243-3791)



명품 '죽장산사과'를 탄생시킨 일등공신 죽장사과영농조합

죽장산사과 재배농가의 머슴꾼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조합장 김문철)은 죽장사과의 맛과 품질은 뛰어난데 반해 판로 개척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에 죽장면 합덕리에서 사과재배를 하던 허동식 전 조합장(초대)을 중심으로 사과재배를 하는 116농가가 공동 출자하여 지난 1996년 9월 설립했으며, 죽장면 소재지에서 청송방향으로 약 3km 정도 가다보면 죽장면 방흥리 국도변에 자리잡고 있다.

김문철 조합장과 정인용(43세) 상무 등 6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사과재배 농민들로 늘 북적대고 부산하다. 조합의 창고 안은 추석전 성수기를 맞아 출하를 앞둔 사과상자들로 넘쳐 났으며, 1일 최대 27톤을 선별할 수 있는 대형 사과 선별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죽장 산사과의 탁월한 맛과 향은 지리적 여건탓도 있지

만, 무더운 여름날 무수히 쏟아 낸 사과재배 농민들의 땀방울과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인용 상무의 설명이다.

죽장사과영농조합은 250여 사과재배 농가중 118농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비가입 일반 과수농가도 많다. 조합원 118농가 중에서 39농가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아 '친환경 농산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하루가 멀다고 농약을 뿌리는 일반 사과재배 농가에 반해 농약을 전체 사용량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 상무는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죽장 산사과를 국내 유명 대형할인점에 판로를 뚫어 출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첫 골프장 '오션힐스 포항C·C', 오는 10월 개장

푸른 동해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녹색 필드가 그림처럼 펼쳐진 포항지역 첫 골프장 오션힐스 포항컨트리클럽이 오는 10월 개장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공사에 여념이 없다. (주)영우개발(대표이사 이경락)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 208번지 일대 40여만평에 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27홀 규모로 건설해 온 이 골프장은 오는 10월 중순경에 조성이 완료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게 된다.

포항 시내에서 국도 7호선을 따라 영덕방향으로 2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골프장은 푸른 동해바다와 내연산 자락 그리고 녹색 필드가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코스를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으며, 코스내에 30실 규모의 골프텔인 클럽하우스와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 온천욕 시설 등을 마련하여 골프 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씨 사이드(sea side) 리조트 단지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이 골프장은 바다와 인접한 국내 최초의 씨 사이드(Sea side) 골프장으로,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하게 샷을

날릴 수 있어 쾌감을 배로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지난 1989년 10월 23일 (주)대동개발이 인가를 받은 후 주민과의 민원으로 13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민선2기에 들어와서 포항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활로를 모색, 지난 2002년 11월에 골프장 건설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포항시는 이 골프장 건설로 연간 7백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상용인원 2백명, 일용인부 연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억원 정도의 시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054)262-1500)



보랏빛생명 꽃피우는 가을 아생화 해국



이맘때쯤의 가을철에도 제철을 만난 들꽃들은 어김없이 피고 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아생화가 바로 해국이다.

중부 이남의 해안 바닷가 깎아지른 바위 벼랑이나 바위틈에서 암벽을 뚫고 보랏빛 생명을 꽃 피우는 해국(海菊)은 7~11월에 연한 자주색 또는 흰색 꽃을 가지 끝에 아름답게 피우는 대표적인 가을 아생화다.

해국은 말 그대로 바닷가 척박한 바위틈에서 피는 국화로, '해변국화'로도 불리는데, 다른 식물들이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닷가 벼랑이나 비좁은 바위 틈새에 피어 있어서 훨씬 더 돋보이며, 꽃 빛도 선명하기 그지없다.

암벽과 갯바위를 곱게 수놓는 해국은 꽃의 크기며 빛깔이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구절초와 아주 흡사하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해국은 뿌리가 강건하여 정원석 사이나 돌이 많은 화단에 심어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풀 전체와 꽃에서 향기가 많이 나는 아생화다.



뒤에는 웅두산 앞에는 동해산 정기 바다 정기
모두 모아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보금자리다
찬란히 빛나거라 대한의 꽃아 정인한 산의 기
파도의 웅맹 본받아서 자라라 동부의 별아

69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포항 인재 배출의 산실 포항동부초등학교

영일만 바다 내음이 파도를 타고 끊임없이 밀려와 꽃향기 마냥 늘 코 속을 가득 채우는 곳
북구 두호동 언덕자락에 보금자리를 튼 포항동부초등학교(교장 최태우).

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자리잡은 포항동부초등학교는 69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나라 정계, 관계, 재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배출하여 경북 동해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역사를 주도해 온 진정한 초등 교육의 산실이다.

앞으로는 영일만이, 뒤로는 산호그린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이 학교의 교정에 들어서면 오른편으로는 7, 80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자리잡고 있고, 왼편으로는 수령 400년의 아름드리 회화나무 한 그루가 오랜 세월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버티고 서서 이 학교의 오랜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또 일곱 그루의 향나무와 야생화를 심어 본동 교사건물과 운동장을 경계 삼아 단정하게 잘 가꾸어 놓은 화단을 보면

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교직원들의 정성을 엿보기에 충분했다.

이 학교는 지난 1935년 4월 23일 형산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5월 26일 개교했다. 이후 1946년 4월에 와서 포항동부국민학교로 학교의 명칭을 바꿨다.

또 1985년 9월에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고, 1996년 3월에 포항동부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2월 제64회 졸업생들까지 총 12,6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냈다. 이 학교 졸업생 가운데는 전국 곳곳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이 학교와 포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출중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다.

특히, 이 학교 졸업생 가운데는 정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유난히 많은데, 이 학교 출신으로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들로는 제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의장을 지낸 장성호(9회)씨를 비롯해,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이태조(9회)씨, 두호동에서 초대 포항시의회의원을 지낸 김고시(9회)씨, 환호동에서 초대 시의원을 지낸 공문호(11회)씨, 학산동에서 제2대 시의원을 지낸 박덕근(6회)씨 등이 있다.

또 현재 죽도1동 포항시의회의 의원인 이태용(10회)씨를 비롯해, 제3대 이어 4대에 포항시의회의 의원으로 활동중인

박중연(14회)씨가 이 학교 출신인물로,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은 최영만(23회) 장량동 시의원도 이 학교 출신 인사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교육계 인사로는 동지여상 교장을 지낸 최홍수(3회)씨와 현재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장으로 있는 한석중(7회) 교수 등이 있고, 관계에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정(7회)씨를 비롯해, 포항시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지낸 김실경(3회)씨 등이 이 학교 출신이며, 그 외에도 포항시 경제통상과장으로 재직중인 김순태(26회)씨 등 많은 이 학교 출신 인물들이 포항시청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경제계에는 롯데그룹 이사로 있는 차치우(9회)씨가 이 학교 출신인사이며, (주)동신해운 대표이사로 있는 장성호(9회)씨, 양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상무로 있는 김태춘(26회)씨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해병대 대령 출신의 김원진(6회)씨, 선린병원 사무처장으로 재직중인 김화문(5회)씨 등도 이 학교 출신인물이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출신의 많은 선후배들이 정·관계와 교육계, 언론계, 금융계 등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학교와 우리 포항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학교의 총동창회장은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장으로 있는 한석중(7회)씨가, 그리고 사무국장은 국방부 사무관 출신의 류병석(9회)씨가 맡아서 이끌어 오고 있으며, 설계 감리사로 있는 정현광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 학교 발전에 많은 힘을 쏟아 오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해 냈던 이 학교는 69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 “참되고 슬기롭고 건강한 어린이”라는 교훈 아래 최태우 교장을 비롯한 50

여명의 교직원과 1,240명의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꿈과 희망을 심는 초등교육을 구현하는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또 이 학교는 ‘활기찬 동부교육’ 구현을 위해 ‘더불어 사는 정직한 인간 육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꿈을 키우는 과학 실업교육, 창의력과 정보화 능력 개발, 사랑과 신뢰의 학교교육 공동체 구축’에 학교 경영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어린이, 새로운 것을 찾는 어린이, 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추진해 왔다.

이 학교의 자랑거리는 뭐니뭐니해도 여자배구부(감독 김태철 교사, 코치 이대식 교사)가 단연 으뜸이다.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전국소년체전에 나가 2번이나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3.1절 기념 배구대회 우승, 경북소년체전 배구종목 우승, 춘계종별 배구대회 우승, 전국소년체전 배구종목 3위, 경북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 우승에 이어 올해도 지난 3월 3.1절 기념 배구대회 우승, 지난 4월 경북소년체전 배구종목 우승, 경북배구협회장 배구대회 우승 등 경북도내 배구대회를 석권할 정도로 수상 경력이 그야말로 화려하다.

21세기 한태평양시대를 열어 갈 인재들의 요람 '포항동부초등학교'는 최태우 교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교직원들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기본에 충실한 초등교육으로 69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진정한 초등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슴에 가득 품은 33개 학급, 1,240명의 아동들도 티없이 해맑은 모습으로 교정 곳곳에서 배움의 열정을 꽃피우고 있다.

바이올린 특별활동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



▼ 이 학교가 자랑하는 여자배구부 선수들



▼ 컴퓨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





첨단 바이오 기술로 21세기를 연다 바이오 벤처 선도기업

제노마인

식물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과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해 21세기를 선도하는 농업생명공학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향토 벤처기업 제노마인(주)(대표이사 박경목 · 38세).

포항공대 생공학과와 식물분자유전학 연구실에서 태동한 제노마인은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와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식물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목표아래 지난 1999년 9월 설립됐다.

포항테크노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노마인의 최초 설립자는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남홍길 교수. 그 이후 2001년 3월부터 2년간 박유신씨가 경영을 맡아 오다가 지난해 3월부터 박경목 사장이 이 회사 경영을 맡게 됐다.

현재 제노마인을 이끌어 오고 있는 박 사장은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KAIST(석·박사과정)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후 (주)태평양에서 6년간 기술 및 선임연구원으로 일해 온 연구원 출신의 경영인으로, 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이 회사에 몸담아 왔다.

제노마인의 가장 큰 장점은 맨파워다. 이 회사는 18명의 임직원들 가운데 15명이 연구원이다. 기술력을 가장 중시하는 기업다운 인력 구성이 아닐 수 없다.

또 이 회사는 대부분의 임직원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성과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것도 이 회사의 자랑거리중의 하나다. 이것은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기업가 정신의 실현과 투명경영 실천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

겠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포항테크노파크에 총 12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본사와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중심 기업답게 30평 규모의 식물 배양실과 올리고합성실, 그리고 60평 정도의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00년 2월 처음 설립한 이 회사 부설 연구소 GABRI는 제노믹스와 프로테오믹스의 특화된 분야에 연구력을 집중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소다. 현재 이곳에서 다수확 또는 내한성 신종종 개발 등의 신 기능성 작물과 친환경 식물생장조절제 등의 개발이 한창이다.

이 기업은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해 10억45백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올해에는 15억원으로 매출 목표를 늘려 잡고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업 6년째인 이 기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 여섯 차례의 유·무상 증자를 거쳐 지금은 자본금이 17억57백만원, 총자산만 해도 29억55백만원의 중견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기업은 지난 1999년 8월 기술우수기업으로 평가받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매일경제 IBI 유망 바이오 기업으로, 2002년 11월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스타벤처기업으로, 지난해 9월에는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허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건수만 21건에 이르고, 등록된 특허만 해도 8건이나 된다. 또 두뇌한국 21, 프린터 사업, 농림기술 개발연구 등 다수의 국책연구과제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제노마인은 탄탄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검증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착실하게 대외 신임도를 높여 오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해 가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업종은 생명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주요 사업들로는 신 기능성 작물, 신 기능성 제조제, 천연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개발, 연구 서비스 제공 등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유용 기능성 유전자 발굴 기술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핵심기술로, 이 기술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용, 식물 유용 유전자 발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효율적인 연구관리 시스템 및 적극적인 업무 제휴 등으로 식물 수명 연장 유전자, 개화시기 조절 유전자, 환경 저항성 유전자 등에 관해 괄목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기술이전도 추진중이라고 한다. 또한 벤처의 생존 전략인 아웃소싱과 전략적 제휴도 적극 추진하여 현재 미국 바이오 업체와 신기능성 작물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SK와의 신규 항암제 개발, 한국화학연구원과의 신규 제조제 개발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추진중인데, 이미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중이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연구 서비스 사업은 이미 국내 및 해외 연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외국기업에서 이 회사와 서비스 제휴를 요청한 상태로, 본격적인 기술 수출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연'과 '자연'을 모토로 한 이 회사는 천연식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관련 기술을 제품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 위협 1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아토피 웰빙'을 개발 완료하고, 9월중 시판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국내시장 규모만 해도 1천억원대에 달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주)풀무원에 기

술 이전한 기능성 식품이 추석 전에 출시예정이다. 이 제품들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일체의 화학적인 향이나, 색소, 계면 활성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천연 식물성 제품으로 국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For Better Life through Genomines." 제노마인의 신조(Credo)다. 생명공학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결과물들을 산업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식물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발전의 모델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기업 제노마인. 기술 중심의 기업답게 신 기능성 작물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장기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공격적인 특허전략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 단백질 분석, 유전자 분리분석, 올리고 합성 등의 연구 서비스와 연구개발 용역 등 기술 노하우의 상업화로 단기 수익창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제노마인은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원리와 벤처 생태계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수립, 생명공학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사업활동에 여념이 없다.



보다 더 나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업 경영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도전정신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첨단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노마인 가족들의 큰 꿈과 희망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지역의 자랑스런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CEO 인터뷰

제노마인(주)의 박경목 사장은 "포항은 포항소재 R&D특구, 지식기반 집적지구, 영일만 신항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 등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며, "앞으로 지자체에서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R&D 전문 벤처기업의 육성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R&D 전문 벤처기업 특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포항을 떠나지 않고 지역적인 한계 등은 산학 협력으로 보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 밀착형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경영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제노마인(주) 박경목 사장



어려운 이웃과의 사랑의 가교 놓는 포항푸드뱅크

푸드뱅크(Food Bank)는 한마디로 어려운 이웃의 징검다리다.

푸드뱅크는 잉여식품의 기탁과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식품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식품제조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식품은행인 것이다. 이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복지제도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8년 보건복지부가 후원 및 지원해 주는 푸드뱅크 중앙조직인 전국푸드뱅크 조직을 시작으로 전국의 16개 시도의 광역푸드뱅크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232개소의 기초 푸드뱅크가 조직되어 활동해 오

고 있다.

포항에도 불우가정 등에 음식을 직접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1개소의 기초 푸드뱅크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바로 포항푸드뱅크가 그곳이다. 다른 어느 지역의 푸드뱅크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포항푸드뱅크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남구 송도동에 위치한 포항모자원(대표 신인숙)에서 맡아 운영해 오고 있다.

포항푸드뱅크는 포항시 관내 사회복지관이나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민간시설, 경로당, 쉼터, 불우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약 4천5백여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포항푸드뱅크 큰사랑 봉사단(회장 정지연) 소속 자원봉사 회원 30여명이 함께 사랑을 나누어 오고 있다.

푸드뱅크는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빵과 음료를 비롯한 생필품이나 양념, 과일, 채소, 육류, 곡물, 도시

락 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많은 후원자들이 있지만, 특히 런던제과나 시민제과, 푸레쥬르, 던킨 도너츠, 코넬 등 20개소 제과점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해 오고 있으며, 포항고등학교, 중앙여고, 유성여고 등 시내 대부분의 학교 급식소와 죽도시장 상인, 농협공판장 상인들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1년 2월 필립스코리아에서 냉동보관차량 1대를 기증하는 등 지역의 많은 기관단체와 독지가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오고 있기도 하다.

포항푸드뱅크는 지난해 5월 베스킨라빈스와 함께 결식아동돕기 캠페인을 펼쳤으며, 지난해 6월에는 여성가장돕기를 위해 일일찻집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랑한마당 행사를 열어 푸드뱅크 대상자와 함께 공연, 게임 등으로 축제한마당을 가지기도 했다.

포항푸드뱅크 소장을 맡고 있는 신인숙 포항모자원 원장(43세)은 포항푸드뱅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부의 아무런 지원이 없어 몇 명의 주부들과 함께 어렵게 운영해 왔지만, 지금은 6명의 자활근로사업자와 20여명의 큰사랑 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많이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항푸드뱅크가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포항푸드뱅크 사업의 홍보, 기획, 관리, 운전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조심스럽게 틀어 놓는다. “감사합니다에서 시작해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이 푸드뱅크사업”이라며, 잉여 식품을 기탁하시는 분이나, 전달 봉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수혜를 받는 분 모두가 한결같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신 소장은 남은 음식을 버려서 낭비하지 말고 이 포항푸드뱅크에 기탁해 주시면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한 작은 사랑 나눔 문화가 잔잔하게,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덕이 다시 되살아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신 소장은 “앞으로 10년 후 푸드뱅크 사업이 아름다운 사랑의 복지제도로 자리잡고, 우리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푸드뱅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곳에서 전달하는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많은 후원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후원해 주는 음식이라며, 올바른 음식 기탁 문화 정착으로 따뜻한 사랑이 배어있는 음식이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되어 포항푸드뱅크가 어려운 이웃과의 사랑의 가교를 놓는 동시에, 진정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인식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포항푸드뱅크는 음식을 통한 후원문화 정착을 이루어 가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곳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포항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웃사랑운동을 바로 이곳 포항푸드뱅크에서 소리없이 직접 실천에 옮겨오고 있는 것이다.

(문의: ☎국번없이 1377, 231-0847)



사진으로 되돌아 보는 세계 해병전우인축제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해병대의 제2의 고향인 포항에서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세계 해병전우인축제. 그 감동의 순간들을 몇 장의 사진으로 되돌아본다.



▲ 2004 세계 해병 전우인 축제 개막식



▲ 2004 세계 해병 전우인 축제 개막 축하공연



세계해병전우인축제 나흘째인 지난 7월 27일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 해병전우인들이 IBS(상륙용) 보트경기를 펼쳐 피서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50~60대의 노병들이 보트를 타고 노를 힘차게 젓고 있다.



세계해병전우인축제 개막 사흘째인 지난 7월 26일 포항 북부해수욕장에서는 포항시민과 해병대 장병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인 3종경기와 상륙돌격차량(KAAV) 탑승 및 기동 시범훈련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 축제에 참가한 해병전우인들이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장면



▲ IBS 상륙 시범훈련



▲ 해병대 장병들의 태권도 격파 시범



▲ 철인 3종 경기의 마지막 경기인 사이클 끝인 장면



이젠 주5일 근무시대다

그 동안 시행시기와 임금보전 등 논란이 많았던 '주5일 근무제'가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의 결과로 지난 7월 1일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및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개막됐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해 8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업종과 규모에 따라 '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먼저, 금융·공공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300인 이상은 내년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은 2006년 7월1일, 50명 이상은 2007년 7월 1일, 20명 이상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그리고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다만 관공서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7월 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둘째,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격주 휴무제를 운영한다.

주5일 근무제의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것. 지난 1989년에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지 15년만에 다시 법정 근로시간

이 단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주 5일 근무제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며, 또 주5일 근무제로 하더라도 특정 요일을 쉬도록 돼 있지 않아 반드시 토, 일요일 연휴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현재 1개월 개근때 1일인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1개월당 1일인 유급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며, 1년 개근때 10일, 이후 1년당 하루씩 추가되는 연차휴가는 2년당 1일을 가산해 15~25일로 조정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등 공공 부문과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중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00명 이상은 2006년 7월, 50명 이상은 2007년 7월, 20명 이상은 2008년 7월 각각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20명 미만 기업은 201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을 포함한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천37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5.6시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의 2002년 기준을 보면 독일 1천361시간, 프랑스 1천 453시간, 영국 1천683시간, 스페인 1천748시간, 미국 1천802시간 등에 크게 웃돌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으며, 기존의 휴식이나 수면, TV시청 등 단조롭던 여가생활이 가족단위의 등산이나 스포츠, 문화, 레저활동,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화돼 가족의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 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급 주휴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이 개선될 경우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들어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부담이 늘어나 기업 경영에 역효과를 줄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 관광 등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약 6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이나 여성 등의 실업문제 해결과 총 5.2%의 고용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 추진 현황

우리나라에 법정 근로시간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 제정때부터. 당시 법정 근로시간은 주48시간. 1989년에 와서 44시간으로 단축됐고, 다시 15년만에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 것. 미국은 1938년 주40시간 근무제를, 프랑스는 1998년에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일본도 1987년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2000년 기본원칙에 합의하면서 비롯됐고, 이후 2002년 7월까지 100여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노사간의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일부 반발로 인해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29일 근로기준법을 개정, 9월 15일 공포하게 됐다.

이들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주 5일 근무제가 삶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말 활용법에 당연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이들의 여유를 어떤 삶의 방식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의 주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말을 잘 보내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시대를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행동지침 10가지를 생활속에서 꼭 실천했으면 한다.

첫 번째로, 개인의 경쟁력이 창의성과 상상력에 달려 있는 시대다. 여기에 필요한 여가 활동은 창조력의 원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가는 필수다. 그리고 일을 위한 짧은 휴식이 아닌 여가를 위해 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5일간 한다고 밤 늦게까지 무리하면 피곤이 누적돼 휴일에 잠만 자게 된다. 따라서, 일을 할 때는 시(時)테크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40시간 근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때로는 과감하게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혼자 보낼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체질, 내면적 욕구, 환경에 맞는 치밀한 여가계획과 전략을 세워 나만의 여가 스타일을 디자인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는 취미를 즐기더라도 깊숙이 빠져들어 '프로급 아마추어'가 돼서 창의적 직업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니아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가끔씩 자연으로 돌아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부딪치며 모험을 즐기고, 긴 여행보다는 짧은 여행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집에서 쉬더라도 계획 속에 넣어서 쉬고 여행과 가족행사, 자기계발 등이 들어가 있는 주말 달력

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여덟 번째로, 성과주의 시대에 자기능력을 계발하는 것은 필수다. 어학이나 정보기술 등 자기 계발에 여가시간을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여가를 통해 각종 동호회, 연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류의 폭을 넓히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여가 중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과 여가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 일과 여가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5일 근무제의 핵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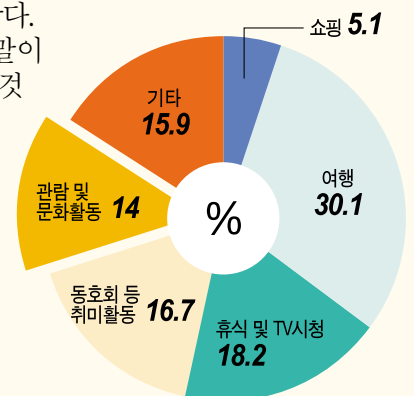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방법만 배웠지 인생을 즐기는 요령은 배우지 못한

까닭에 주 5일 근무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의 여가를 가만히 앉아서 허비하거나 의미없이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주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고 여기고, 이들간의 휴일 중 최소한 하루는 동호회 등을 통한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재충전하고, 하루는 가족이나 연인에 투자하는 라이프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늘 주말이 기다려지고 반갑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의 강도를 높여 주중의 일은 주중에 끝내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평소의 약속을 반으로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주5일제에 대한 주말여가 활동 형태 직장인 조사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주5일 근무시대, 효율적인 휴일 건강관리는 필수다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열렸다
휴일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생활 패턴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잘못 쉬게 되면
주5일 내내 괴롭다. 월요일 출근 첫날부터 피곤하다는 사람도 생긴다

그럼 여기서 이틀동안의 휴일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늦게 자도 일어나는 것은 제때 일어나야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토·일요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그러나 늦게 일어나면 머리와 몸이 더욱 무거워진다.

햇빛이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게 자더라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시 토요일에 늦게 일어났더라도 일요일에는 평일처럼 일어나 운동이나 산책 등의 활동을 하면 원래의 생활리듬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토요일에 강한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관리에 매우 효율적이다.

주중에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지만 직장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주말 중심으로 운동을 하겠다면 가능한 한, 토요일 1시간 이상의 조깅이나, 축구, 농구, 테니스 등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고, 일요일에는 30분 이하의 조깅, 배드민턴, 줄넘기 등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등산을 하더라도 가급적 금·토요일 위주로 하고, 늦어도 일요일 오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휴일에도 회사를 둘러보고 일을 해야만 안심이 되는 일 중독자인 “휴일 증후군” 치료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

일을 벗어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쉼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같이 오는 휴일증후군은 휴일만 되면 근육통,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 등의 증세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휴일엔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

휴일에 친지나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을 정하거나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도록 한다.



주5일 근무시대, 달라지는 생활풍속도

“Thanks, god (goodness). It's Friday!” ‘감사합니다. 하느님. 금요일입니다.’

주 5일 근무제는 경제성장기를 주도해온 ‘노동집약적’ 근무제에서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근로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경제성장기를 주도해온 근로시간과 능력이 비례한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웰빙(Well-being) 분위기 확산과 함께 직장인들의 삶을 일과 직장에서 취미와 가정으로 변화를 몰고 왔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 칸트
“근로는 매일을 풍부하게 하며, 휴식은 피곤한 나날을 더욱 값있게 한다.” - 보들레르



생활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5일 근무제에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상은 가족과의 유대 강화, 휴식과 오락 활성화, 체험형 소비의 일반화, 학습 기회의 증가, 복수 직업, 야외 활동, 마니아의 증가 등 크게 7가지로 압축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여가문화를 종전의 ‘노는 형’에서 ‘쉬는 형’으로 바뀌 나가야 한다. 또 종전에는 ‘금전 소비형’ 여가 행태를 보여 왔지만 앞으로는 ‘시간 활용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특히 동호회 등을 통한 취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많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요일만 되면 잠이나 밀린 집안 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금요일 업무를 마치면 2박3일의 여가 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주말이 여간 반갑지 않게 됐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스포츠, 레저, 여행 등의 취미활동과 자원봉사, 자기 계발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

주말이나 야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투잡스(two

jobs)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활동에 더욱 몰두해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소비자군인 ‘프로슈머(prosumer·취미생활을 직업수준으로 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물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많아지니 가족화합과 자기계발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집안 일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강의 등의 주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여행, 쇼핑, 영화·공연감상, 운동, 취미생활 등 일요일 하루만 지출하던 비용을 토·일요일에 걸쳐 지출해야 하다보니, 주말이 매번 반갑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가족들과 무조건 비교하지 말고, 경제나 건강상태, 가족구조 등을 고려해 분수에 맞고도 즐거운 경험거리들을 찾아야 한다.

처음 몇 달간은 활기차게 가족단위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겠지만, 경제적 한계와 프로그램 빈곤으로 집에서 빈둥거리며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 ‘주말족’이 많이 생겨나리라 예상하기도 하며, 남편은 등산, 축구, 골프, 낚시 등을 즐기러 혼자 나가고, 시간이 많아진 아이에게 학원·과외 등 사교육을 시키다보면 가족간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가족 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그리고 직장에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취미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겸한 사내 동호회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사회봉사활동과 외국어 공부나 자격증 따기 등 자기계발 열풍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식문화가 금요일 저녁에서 목요일 저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근무강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로 근무강도가 엄격해 졌다. 그리고 ‘집중근무제’ 도입이 일반화되고, 각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성 혁신기법이 도입되는 등 평일에 업무의 혁신과 일의 강도를 종전보다 높여 일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레포즈 상품을 연계한 금융상품이 등장할 정도로 레포즈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며, 레포즈업계는 수상스키, 래프팅, 암벽타기, 윈드서핑 등을 비롯해 신종 레포즈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의 관중도 크게 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일정도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도록 조정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해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테니스코트, 농구코트, 인라인, 하키링크, 간이야구장, 잔디축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종 공연도 일요일 저녁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앞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분산 기획하여 관객을 유도해야 할 것 같다.

주말의 생활패턴 변화를 종교계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요일예배가 일반적이지만,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후 예배로 변화가 예상되며, 불교계는 여행과 선(禪) 체험을 결합한 형태의 '주말 산사(山寺) 체험 프로그램'이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주말에 TV시

청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프라임 시간대를 금요일 밤으로 잡아 편성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 레저, 영화정보 등을 모은 오락성향의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해 나가겠다는 추세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휴양지 음악회 등 레저와 문화를 결합한 공연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도자기공방, 공예 스튜디오, 펜션 등을 동시에 갖춘 미술관과 펜션, 레스토랑 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문화공간도 많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극제, 국제음악제 등 주민 서비스, 관광수입 확보를 동시에 노리고 각종 페스티벌을 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의 새 주체로 떠오르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직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문화 프로그램이나 가족 휴식공간 등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선진국처럼 놓고 즐길거리와 휴식을 취할 거리가 그리 풍족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문화·관광 인프라, 생활체육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 7월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범정부 차원에서 생활권내 여가 인프라 조성, 각종 여가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마련, 전문인력 양성, 여가정책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한 '주40시간 근무제 대비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여가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걸어서 15분내에 갈 수 있는 집 주변과 생활권내에 소규모 생활도서관 45개소, 복합문화공간 15개소를 올해 안에 75억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공공기관,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강당, 시청각실,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과 기업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주말 여행을 값싸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목적 캠핑장과 유스호스텔 설치 지원, 펜션을 자연체험형 숙박시설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하게 되며, 올해 안에 공릉 화석지와 철새도래지 등 31개소를 생태·레저관광지로 조성하고, 2013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1천여개, 200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60여개와 산림휴양공간 334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리고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주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 문화 존(zone) 조성, 도시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모셔오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의 복합문화공간 및 장수체육교실 운영 방안 등도 마련됐다. 문화유산 해설사 등 여가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여가지수 개발 및 여가문화수준 조사, 정부내에 여가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여가담당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격조높고 아름다운 문인화의 세계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훌륭한 작품 한 점을 대했다면 이는 분명 신선한 즐거움이요 작가와 만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훌륭한 작품과의 대화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지친 삶을 치유해 주는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가꾸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루어 가는 문화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은 풍요롭고 아름답다.

우리는 중국의 전원시인 도연명을 알고 있다. 그는 40대초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자연을 벗삼아 시를 쓰며 조촐하되 유유자적한 삶을 보낸, 그야말로 안빈낙도를 즐긴 선비중의 선비였다.

그를 소재로 한 창현 박종희 작 '오류선생전'을 보면 그림 속에서 맑고 청아한 바람이 불어옴을 느낀다. 우리가 문인화에 끌리는 것은 이 땅의 소박한 정서가 숨

쉬고 바위와 달과 나무와 새가 일상에 지친 우리를 편안하게 위무하며, 선조들의 청빈하고 여유로운 삶이 절절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고향의 맑은 바람과 달빛아래 한줄기 거문고 소리를 듣는 시정(詩情), 어느 날 산등성이에 내려 앉는 별빛과 별레소리, 계곡의 물 소리가 있어 더욱 이 그림세계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다.



조 우 정
운향문화연구실 원장
전 포항시여성문화회관 관장



창현 박종희 작 「오류선생전」, 수묵담채

전통적 문인화의 개념은 문인. 옛날 사대부 등의 지식인들이 글공부 중 여묵(餘墨)으로 난이나 대나무 등을 그린 데에서 유래하는데, 작품을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군자의 고아함과 담박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며, 유구한 세월을 두고 형성되어진 우리민족의 정서이자, 문화 자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무국적(無國籍), 혼혈아와 같은 왜곡된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

이상한 풍조와 기류를 어느 교수는 일종의 ‘문화거부 현상’이라고 까지 개탄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비근한 예가 학력-대학-지식에 대한 조롱, 비하, 거부의 공공연한 언행이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를 미개수준으로 추락시킬 위험이 있거늘... 더욱 심한 것은 말초적, 퇴폐적 문화가 판을 치고, 영어발음을 위해 어린이이 혀까지 자르는 나라다. 비록 극소수이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적이고 올바르고 멋있게 사는 삶인지, 왜 학문과 예술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는 자신과 싸워나가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훌륭한 작품이란 과거에 안주하거나 고루한 인습을 고집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창작품으로서 미적 감동이 있어야 하며 생명력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선조들의 회화철학을 살펴보자. 첫째, 논어에 회사후소(繪事後素)란 말이 있다. 그림 그리기에 앞서 마음바탕, 인간됨됨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후소정신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노력할 때 사회도 고아하고 품격있는 삶이 될 것이며, 이 정신이 그림속에 잘 융해될 때 잔재주가 아닌 격조높은 문인화도 탄생될 것이다.

둘째로, 도가(道家)의 무위사상(無爲思想)이다. 이는 인위적 가식적인 것에 식상해 있는 현대인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자재로 우주를 넘나드는 신선과 같은 세계로 선회도 통하는 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은 문인화가 생명처럼 지향하는 속기가 없고 기운생동(氣韻生動)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근간이라 하겠다. 이런 요소가 결여되었거나 근본이 무시된 문인화 그림은 설령 사군자를 소재로 그렸다해도 다 문인화는 아닌 것이다.

좀 각도를 바꾸어보자. 직장마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다. 쉼다는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소중하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TV앞에서, 게임으로, 음주와 노래 춤으로, 각종 모임참석이나 우왕좌왕하며, 가사노동, 봉사활동 등으로, 외국어공부, 가히 상상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5년만 지나도 확연히 구분된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의 반열에 접어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말이다.

푸른 동해와 제철공장이 있는 포항은 외형상 축복의 도시임에 틀림없다.

최근 들어 포항시에서는 해맞이축전 행사를 필두로 시민의 날 불빛축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세계해병전우인 축제, 과메기, 산나물, 고로쇠 축제 등 각종 축제가 포항시의 예산지원과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신명나는 삶의 활력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뿌리인 정신적인 문화, 즉 고전에 대한 연구, 특히 문인화 분야는 관심이나, 지원면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각 문화센터나 교육기관마다 말초적인 오락중심의 교육과목인 댄스, 노래 등에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인근 경남의 경우만 해도 초중고 학생 문인화 공모전에 1,219점의 작품이 응모되어 대성황을 이뤘다(2003년 통계).

포항시서예가협회가 주관한 경북학생서예실기대회에 겨우 5~6명만이 응모한 것과는 매우 상반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타 지역 시, 도청의 경우를 보면 국전이상 입상한 공무원이 보통 60~70명씩이나 된다. 그중 초대작가도 수두룩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시의 시민의식의 백년대계를...

외형적 축제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신문화와 상호 조화를 이룰 때만이 조화롭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도,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등 교육기관도 진정으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옛 선인들의 얼과 자취 가득한 장기충효관



충(忠), 효(孝), 예(禮)의 고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남구 장기면 마현리 장기초등학교 동편에 세워진 장기충효관이 지난 6월 19일 문을 열었다.

부지 410평에, 연면적 88평 규모의 이 충효관은 전통 한옥형 건물로 단아하기 그지없다.

장기충효관은 충효와 절의로 고장의 이름을 빛낸 선인들의 얼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는 숭고한 정신의 계승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장기발전연구회(회장 이민홍 성균관대 대학원장)가 중심이 된 충효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수)가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건립했다.

장기충효관에는 옛 선인들의 얼과 자취가 가득하다. 전 시실에는 이곳 출신으로 임진왜란때 경주성 탈환작전에 큰 공을 세운 의병장 죽계 이대임과 서방경, 서극인 등의 병장을 비롯해 구한말 왜적을 위해 싸웠던 의병장 장현문, 정치익 등의 활동상과 유물, 판결문 등이 전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때 이곳에서 귀향 생활을 보냈던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 한때 이곳을 거쳐갔던 회재 이언적 등 선인 17명의 발자취와 시문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특히 40여평 규모의 2층 대강당에는 장기지역에서 수집한 300여점의 고서들이 빼곡하게 전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질을 알 수 있는 화석들을 비롯해서, 토제

벼루와 신라 토기, 도요지 잔존물, 20여점의 민속공예품 등 요즘 좀처럼 보기 드문 약 1천여점의 유물들이 전시돼 지역 청소년이나 이 곳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전시된 귀중한 유물들은 대부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영일중학교 교장을 지낸 이상훈씨가 지질조사 연구를 위해 수집 보관 중이던 화석과 장기면 금곡리 이도룡씨가 기증한 식물화석은

이 곳을 찾는 이들의 관심거리 중의 하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기면 산서리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과 마현리에서 출토된 신석기 유물들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충효관은 주로 장기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예절교육 등의 공간으로 이용해 오고 있지만, 장기읍성이나 장기향교 등 장기지역의 문화재를 견학 온 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최근에만 해도 상주 상지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90명과 3060 로타리클럽 회원 2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1층에 있는 20평 규모의 소강당은 13~14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하는 한자·한글 서예교실을 비롯해, 사자소학, 명심보감, 경전강독, 영어회화, 건강교실, 게이트볼 등을 배우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충효관은 충, 효, 예를 지키며 뜻있게 살다간 옛 선인들의 숭고한 얼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인 동시에, 장기사람에게서만 풍겨나는 곳곳하고 애잔한 역사의 체취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충효의 정신과 옛 것을 배우고, 조상의 얼과 자취를 느껴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충효관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다. 이용절차도 매우 간편한데, 이 곳을 이용하려면 충효관 운영국장(금락두·64세)에게 전화로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016-382-9103)



자연을 닮은 순수한 사람들 **창사모**

‘창의로운 사람들의 모임’ 창사모(회장 송양순)는 지난 1999년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그림을 그려오다가 좀 더 구체적이고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쳐 보겠다는 15명의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결성한 지역의 주부그림 동호회다. 현재 창사모는 결성 당시보다 비록 회원수가 줄었지만, 송양순 회장을 비롯해 총무 정인화씨 등 소수 정예 멤버 10명이 함께 작품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회원들은 미술학원을 경영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공부방 운영 등 주로 교육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각자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창사모는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 2회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함께 작업을 하는데, 이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야외스케치나 사진촬영을 하면서 작품 구상과 작품 활동에 빠져들기도 한다.

창사모 회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회’ 이창연 회장과 대백문화센터 강사인 서양화가 김지연씨의 수업 지도와 격려에 늘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창사모 회원들.

이들은 서양화가 김지연씨의 서양화 수업과 지도와 더불어 야외스케치 활동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그림 실력을 연마해 왔으며, 지역 여성작가전과 미술 전시회에 빠짐없이 참가해 작품 감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을 길러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 미술단체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다.

‘창사모 회원들은 지난해 창립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작품전인 ‘제2회 창사모 회원전’을 지난 4월에 대백 갤러

리에서 열기도 했다. 해가 갈수록 회원들의 개성이 작품속에 배어나고, 열의 또한 높아 눈에 띄게 성숙된 작품들을 선보여 오고 있는 창사모 회원들은 풍경화와 정물화 등의 서양화와 수채화, 소묘 등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작품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보는 주변의 반응도 매우 좋다.

창사모 회원들은 작품활동을 하면서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가슴속의 느낌이 붓끝으로 모아지지 않을 때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겨운 창작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림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며,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더딘 과정들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극복해 낸다”고 한다. 회원들은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서 미미한 일상이 또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고, 평범한 물체와 자연도, 그리고 사람도 아름다운 색채로 느껴져 보람을 찾기에 충분하다. 창사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니뭐니해도 늘 허름한 청바지차림에, 땀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술을 진정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회원들의 모습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창사모 회원들은 주변 사람들의 삭막한 정서의 문을 두들겨 안락한 휴식을 나누고 싶어한다. 그리고 전시회를 자주 열어 많은 사람들과 문화와 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의 포항발전에도 작은 일조를 하고 싶은 게 창사모 회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작은 소망이다.

제59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포항에서 열려



젊음의 축구축제, 제59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가 조선일보·스포츠조선·대한축구협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포항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고교 60개팀, 3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으며, 포항종합운동장에서 동북고와 승신공고의 화려한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포항스틸러스

축구전용구장, 송라 3·4구장, 포스코 협동구장에서 12일간 그 동안 쌓아 온 기량들을 마음껏 선보였다. 지난 9월 13일 포항스틸러스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이번대회 결승전에서는 전통의 강호 성남풍생고가 축구명문 포철공고를 2대1로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과 포항스틸러스 사랑운동의 확산, 지역 축구 붐 조성, 국내 최고 수준의 축구대회 유치로 시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와 체육회가 포항에 유치하게 된 것이다.

포항에 오페라단 창단돼

포항 최초의 오페라단인 포항오페라단이 150여명 규모로 창단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항오페라단은 배효근 前 한동대 선린병원장이 단장을, 박성완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부산대 음대 교수)가 총감독을, 박기완 포항시립합창단원이 사무국장을, 성악가 임용석씨가 제작기획을 맡았으며, 포항 출신 또는 포항에서 활동중인 음악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포항오페라단은 기업 및 민간인 후원과 각종 무대 지원금 등으로 적어도 1년에 한 작품 이상을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창단기념 공연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박성완



총감독이 예술감독을 맡고, 김희운 대구시립 오페라단 감독이 연출을 맡아 지난 9월 17, 18일 포항효자아트홀 무대에 올랐다.

제5회 포항아트페스티벌 열려



‘2004 제5회 포항아트페스티벌-송도(松島) 동빈내항(東濱内港) 사진 특별전’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포항대백갤러리에서 열린데 이어, 이 달 4일부터 1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빛으로 여는 미래, ‘송도(松島) 그리고 동빈내항(東濱内港)’이란 주제로 제5회 포항아트페스티벌이 열렸다.

지역민들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 포항의 독창성과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마음을 모으는 잔치인 포항아트페스티벌은 지역의 문화예술인 90여명이 참여하여 서예, 조각, 사진, 미술, 음악, 연극, 문학, 공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넉넉하게 꾸몄다.

전시회에는 포항과 대구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 78명의 수준 높은 작품이 대거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2004 포항아트페스티벌’ 본행사에 앞서 마련된 특별사진전은 포항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한 송도동과 죽도어시장 진입항구인 동빈내항의 옛 모습(일제강점기~해방전후)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우정씨, 포항시여성상 수상



조우정(曹佑政·62세) 전 포항시여성문화회관장이 지난 7월 9일 제7회 포항시여성상을 수상했다. 조우정씨는 그동안 남여 성차별제도 개선, 무료 가정법률상담, 여성의식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교육기관 무료강사 봉사, 포항시여성문화회관 건립 등의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이

번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포항시여성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조우정씨는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지역 여성발전과 후학 지도에 헌신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포항시청에 2명의 박사 공무원 탄생해



김홍중 과장



하영길 부장

지난 8월 포항시청에 처음으로 2명의 박사 공무원이 탄생했다.

포항시청 사회복지과장 김홍중(49세)씨와 환경위생과 대기관리담당

하영길(46세)씨가 그 화제의 주인공이다. 김홍중 사회복지과장은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지난 8월 20일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해 온 하영길 대기관리담당은 '토양개량제로서 정수 슬러지의 유효이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지난 8월 17일 환경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975년 임용된 뒤 29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김홍중 과장은 논문에서 '자치행정권의 확대, 지방재정력 확충, 자치입법권 신장'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라고 주장했으며, 또 지난 1980년 9월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하영길 담당은 학위논문에서 정수 슬러지를 생석회와 혼합한 소화반응(Slaking)과 수화반응(Hydration)을 이용해 토양개량제로 사용해 본 결과 놀라운 토양개량 효과를 보여 앞으로 차세대의 농업, 임업, 정원용 토양개량제로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 담당은 지난 1988년부터 선린대학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를 맡아 오고 있는 등 환경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있기도 하다.

2004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성공리에 개최돼



2004 포항바다국제 연극제가 '자연+바다+인간'이란 주제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열흘간의 환호해맞이공원 야외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4회째를 맞은 올해 연극제에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중국 등 해외 5개 극단과 국내 12개 극단 총 17개 극단이 참가해, 열흘 밤 동안 다채로운 연극의 향연을 베풀었다.

그러나 전체 공연 가운데 60%를 차지한 유료 공연에는 관객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이 연극제는 포항시와 사단법인 포항바다국제연극제진흥회(이사장 권오신)가 지역민들의 정신문화 함양과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매년 한 차례씩 열어 오고 있다.

올 가을 주요 문화예술행사

제7회 재생백일장 열려

포항문인협회 주관으로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수도권 덕수공원 재생문화공덕비 앞에서 학생,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덕수공원재생 이명식 선생의 문화에 관한 업적과 삶을 기리는 제7회 재생백일장이 열려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하는 시간이 됐다.

제8회 포항국악경연대회, 10월 2일 개최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에서는 오는 10월 2일 오전10시 포항청소년수련관에서 올해로 여덟번째인 포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기악, 무용, 타악, 성악 4개부분으로 초·중·고 일반으로 나누어 열띤 경연을 벌이게 된다.

2004 영일만 백일장 개최

포항문인협회는 오는 10월 9일 오후 2시에 포항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일반인과 학생이 참가하여 자신의 기량을 펼치게 될 2004 영일만 백일장을 개최하며 주제는 행사 당일 발표하게 된다.

2004 포항시민노래자랑대회 개최

한국연예협회 포항지부는 오는 10월 9일 오후 7시에 환호해맞이공원에서 포항시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포항시내 각동 대표를 선발하여 1차 예심을 거친 뒤 20여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경합을 펼치게 되며, 초청가수의 공연도 이어질 전망이다.

영일만 학생미술서에 실기대회 개최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는 포항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9일 환호해맞이공원 중앙공원에서 영일만 학생서예실기대회를 개최하며, 초등 저학년은 상하화, 초등 고학년 · 중 · 고교생은 풍경, 서예부분으로 나누어 실기대회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영일만 음악제 개최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7시에 환호해맞이공원 중앙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영일만 음악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용협회, 무용공연

한국무용협회 포항지부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7시 환호해맞이공원에서 발레 · 고전 · 현대무용을 총망라한 열정적인 무용공연을 펼치게 된다. 이번 공연에서 포항무용의 진수를 선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시고기 연극공연

포항연극협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를 연극화하여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밥을 굶더라도 축구는 한다” 상대초등학교 여자축구부의 축구사랑



초가을 날씨라고 하지만 아직도 한증막 더위는 여전하다. 상대초등학교(교장 문종구) 여자축구부 선수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땀이 흘러내리지만 연습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체력강화 훈련에서 기본기를 닦는 훈련, 연습게임까지 훈련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져 갔다. 아직 부모 품에 안겨 응석 부릴 나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투지만은 남달랐다.

‘상대초등학교 여자축구부’는 여자축구 붐 조성과 지역의 여자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26일 18명의 선수로 창단했다.

창단 당시 ‘2002 한·일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의 승승장구로 4강까지 진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축구 붐 덕분에 축구부원 모집이 무척 수월했다고 한다. 또한 “여자애가 무슨 축구냐”며 극구 반대하던 학부모들의 자세가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호의적인 자세로 바뀐 것도 이 학교 여자 축구부 활성화와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



상대초등학교 여자축구부는 현재 선수가 14명. 이 중 4학년이 5명, 5학년이 5명, 6학년이 4명이며, 창단때부터 감독을 맡아 온 최종문(남·30세) 감독 교사와 대학에서 여자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김민진(여·21세) 코치가 14명의 선수를 지도하며 동고동락해 오고 있다.

이 학교 축구부 선수들의 축구 시작동기를 보면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비만인 학생과 허약한 학생의 체질 개선에서, 아버지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된 학생, 축구 선수가 꿈인 학생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축구부에 들어온 모든 선수가 축구를 하며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학교 여자축구부 천건희(6학년), 이경남(6학년) 선수가 그 기량을 인정받아 전국에 30명 정도인 12세 이하 유소년 국가 상비군에 선발되어 지역 사회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으며, 팀 전력도 매우 탄탄하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청소년 대표를 거쳐 우리 나라 여자축구를 이끌어 갈 재목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 학교 선수 7~8명은 여자 축구부가 있는 향도중학교에 진학해서 계속 여자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싶어할 정도로 축구에 열의가 대단하다.

창단 첫해부터 이 학교 여자축구부는 기대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경상북도 교육감기 여자축구대회 3위, 학도체전에서 여자축구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경북소년체전에서 3위, 협회장기 준우승, 교육감기 준우승, 학도체전 우승 등 그야말로 눈부신 성적을 올렸다. 올 해에도 이미 전국소년체전에 경북 대표로 출전하여 준우승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성과 뒤에 선수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남다른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창단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이유석 前 교장(현재 오천초등학교 교장)과 가족같이 보살펴 준 최중문 감독, 그리고 작은 기술하나라도 세심하게 가르쳐 준 김민진 코치의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오전, 오후로 나뉘 하루 3시간 정도씩 비지땀을 흘리며 맹훈련중인 축구부 선수들은 올 9월 통일대기배 전국축구대회와 내년 전국소년체전 경북도 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는 10월 경상북도 학도체전에서 꼭 우승해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굳은 각오를 보였다.

이 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최중문 교사는 “포항지역에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하지만, 과격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부상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이 축구하는 것을 부모들이 꺼려해 선수 영입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 “축구부를 운영해 나가는데,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60~70% 정도의 재정 지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학부모들의 후원회가 결성되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윙과 풀백을 맡고 있는 주장 김아름(13세 · 6학년) 선수는 “처음엔 반대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적극 밀어주는 후원자가 됐다”며, “열심히, 그리고 자신있게 운동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수업과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 많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특별한 어려움은 느끼지 않는다”며, “열심히 운동해서 장차 안정환 선수같은 훌륭한 여자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며 활짝 웃었다.

상대초등학교 여자축구부의 문호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축구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는 포항시내 초등학교 3, 4, 5학년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상대초등학교 여자축구부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들은 이 학교 축구부로 연락하면 축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다.

(문의 ☎281-2317, 016-539-3997)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익어가는 포항청소년자유학교



서는 전임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것이 바로 학생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교사도 보수를 받지 않는 야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고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청소년자유학교다.

청소년자유학교는 지난 2001년 3월에 북구 덕산동 구 포항문화원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운영규모는 20명이었으나, 학생수는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청소년은 분명 우리의 미래요, 희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규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의 길로 접어드는 청소년이 많다.

우리 지역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생겨난 곳이 바로 정규학교 부적응자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인 포항청소년자유학교(교장 김윤규·48세)다.

포항에는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 문제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데 반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한동대 김윤규 교수가 지난 2000년 지역의 권영준 변호사와 푸른마을교회 이상은 목사, 하중곤 원장 그리고 이권주 두호고 교사 등 다섯 분의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대안학교를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학교를 만들기 위해

4명에 불과했다.

그 이후, 2002년 3월에 와서 현재의 북구 대흥동 719-117 번지 영남정형외과의원 옆에 20평 정도의 공간을 임대하여 이전했다가, 올해 5월에 25평의 공간을 새로 임대하여 총 45평 규모로 확장했다.

실험형 대안교육시설로 지정된 청소년자유학교는 비인가 상설학교로, 현재 15명의 학생이 있으며, 3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 대비 교과 수업을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학으로 실시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 영화제작 실습, 자동차, 만화, 디자인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특기 실습교육을 병행하기도 한다.

특히 이 학교는 교원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된다는 것이 자랑거리다. 뿐만이 아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는 게 매우 인상깊은 이 학교의 강점중의 하나다.

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방송국 아나운서도 있고, 포항공대 박사과정 학생도 있다. 그리고 많은 한동대학





교 학생들이 교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은 공부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시켜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윤규 교장의 지론. 그래서 실질적인 학교수업을 통해 검정고시 대비를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교육청에 건의하여 이 곳에 나와서 수업을 하면 본래 소속된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학교는 김 교장이 직접 사재를 털어 공간을 임대하고 외부강연료와 저서 출판 수익 전액을 운영비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제일교회와 곡강중앙교회 신도들

이 매월 보내오는 후원금도 운영에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김 교장은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갈 곳 없어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대안학교든 어떤 학교든 간에 보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냥 가정에 잡아두지 말고 어떻게든지 가정에서 학교로 불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도, 해결방안도 없다. 따라서, 문제 가정에서 자녀를 데리고만 있지 말고 한번 더 주류에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타인의 배려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를 배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생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라고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김 교장은 “정규학력을 가져 이 사회를 자기 힘으로,堂堂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주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규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는 부모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희망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건전한 사회의 기반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

(문의 ☎247-2004, 011-9597-4424)

‘나도’

나도는 청소년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는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지역 청소년이 스스로 구성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도’.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위원회의 애칭이다.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에서 따 왔다는 순수 한글 이름의 ‘나도’는 지난 6월에 중·고등학생 17명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중앙여고 2학년 이효주양. 그리고 부위원장에 손명희(환호여중 3년)양, 홍보분과 위원에 김영래(포철공고 2년), 문화프로그램분과 위원에 이세티(중앙여고 2년), 수련시설분과 위원에 김준수(대동고 2년), 총무에 김유진(환호여중 2년)양 등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도’는 만 13~18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연간 활동계획 수립 등을 토의 결정한다. 또 청



소년 행사를 직접 기획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주임무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진행과 체계성은 다소 미흡하다. 그러나 ‘나도’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의무와 책임을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들이 세상에 던지는 물음표가 진정한 느낌표가 되어 포항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함성으로 모든 가능성에 도전해 나갈 것이다.

‘나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은 매년 말까지 포항시청소년수련관(☎245-6593~4)으로 신청하세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나도’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8회 포항시청소년 창작댄스경연대회’ 열린다



포항시에서는 오는 9월 23일 오후 6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회 포항시 청소년창작댄스경연대회’를 연다. 지역 청소년들의 불꽃 티는 춤의 경연이 예상되는 이번

대회는 4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된 그룹댄스(팀) 경연과 개인경연으로 열리게 되며, 이번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팀과 개인은 오는 9월 26일 열리는 제12회 전국청소년창작경연대회 경북대회 진출 자격이 부여된다. 또 이날 응원상을 수상하게 되는 1개 학교에 대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창작댄스 경연대회는 춤에 대한 인식전환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과 창작활동 지원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자긍심을 배양해 나가기 위하여 포항시가 매년 열어 오고 있는 대회다.

제1회 포항청소년 연극제에서 포항제철공고 대상 수상해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 9월 2일까지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던 제1회 포항 청소년 연극제에서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 3일간 열렸던 이번 연극제에서 포항여자전자의 ‘탑과 그림자’ (이만희 작), 포항여고의 ‘죽은시인의 사회’ (툼 솔만 작), 포항제철공고의 ‘위자료’ (차범석 작) 등 3개 학교가 참가해 하루에 한 작품씩 공연을 가졌으며,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9월 중순에 열린 제8회 경북 청소년 연극제 본선에 포항 대표로 참가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과 그림자’ (이만희 작), 포항여고의 ‘죽은시인의 사회’ (툼 솔만 작), 포항제철공고의 ‘위자료’ (차범석 작) 등 3개 학교가 참가해 하루에 한 작품씩 공연을 가졌으며,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9월 중순에 열린 제8회 경북 청소년 연극제 본선에 포항 대표로 참가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오천고, 레슬링 명문학교로 우뚝 섰다

오천고등학교(교장 홍장표)가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남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전국레슬링대회 고등부 자유형에 출전하여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레슬링 명문학교로 부상해 지역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부 자유형에서 김혁진(1년 · 42kg급) · 김재강(2년 · 91kg급) · 남경진군(1년 · 97kg급)이 금메달을, 58kg급에 출전한 김진군(3년)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이 학교 2학년 김재강군은 이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으며, 레슬링부를 지도하고 있는 김양호 체육부장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오천고등학교는 지난 1998년 레슬링을 교기종목으로 정한 이후, 문화관광부장관기 고등부 자유형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체육대회와 대

통령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레슬링 명문 고등학교로 명성을 떨쳐왔다.

포항이 올해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포항시가 지난 8월 1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청소년 관련 문화인프라 구축실태 평가에서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문화관광부가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 청소년 육성 관련 환경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조성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하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선정사업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민참여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포항시를 비롯해 18개 시·군·구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제청소년과학캠프’ 포항서 열려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이어 한국과학문화재단과 포항공대(총장 박찬모)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포항공대에서 과학실험연구 활동 위주로 영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미국 등 7개국의 고등학생과 교사 84명이 참여한 ‘국제 청소년 과학캠프(ISEC 2004)’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연구소 체험과 과학 실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열렸던 이 캠프에서는 각각 청소년들이 물리, 화학, 생명, 기계, 컴퓨터, 산업공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8개 분야에서 포항공대 교수들의 전문적인 지도로 2주 동안 공동생활을 하며 하루 3~5시간씩 실험과 연구 활동으로 진행됐다.



제29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열려



가을의 문턱에 관악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화음이 우리 포항을 적셨다. 제29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가 지난 9월 2~3일 전국 초·중·고 72개 팀 관악대가 참가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

렸던 것. 한국관악협회가 주관한 이번 경연대회는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잃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열렸으며, 외국인 전문가와 국내 대학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심사와 정의 공정성을 기했다.

사랑의 학교 '음성 꽃동네' 를 다녀와서

포항여자중학교 2학년 조 소 형

“꽃동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참 정겹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누군가에게 꽃동네를 갔다 온다고 했더니 가서 꽃구경 잘하고 오라고 했다. 정말 난 꽃구경을 잘한 것 같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들을 본 것 같다. 처음 이곳에 도착해서 오전엔 별다르게 한 일은 없었고, 오후가 되자 장애체험이라는 것을 했다.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장애물이 어디있는지 짐작해서 걸어가고 다른 사람의 팔에 의존해 어딘지 알수 없는 곳으로 걸어다녔다.

천으로 눈을 가리고 걷는데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가 내주위를 뻑뻑이 둘러 쌓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부딪혀 넘어질 것만 같았다.

평소에 그저 보이면 보이는 대로 눈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와는 조금달리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을 보면 하찮게 여기듯 했는데 이 체험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난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깨달았다.

다음날이 되어서 우리는 각자 나눠진 분담으로 이동했는데 내



가 가게 된 곳은 병원이었다. 병원에 가서 영상실에서 비디오로만 보고 말로만 들었던 가족분들이 계셨다. 다들 몸이 성치 않아서 린겔을 쏴고 뻘뻘마른 모습으로 그저 행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는 담당호실로 나눠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방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우선 난 말을 건네 보았고 안마를 해드렸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른 호실에 가서 할머니 한분께 죽을 먹여 드렸다.

그 할머니가 많이 보이질 않으시고 힘이 없어서 혼자서 해 드실수가 없으신 분이였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반절까지 먹으면 말해 달라면서 계속해서 반절까지 먹었냐고 물어 보셨고 나는 이미 반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었다며 계속 먹여드렸다. 다 드셔야

지만 되는데 할머니께서 자주 밥을(죽) 잘 드시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오늘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버려지고 아프고 힘들고, 세상으로 보면 소외되신 분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

참된 봉사와 사랑을 가려쳐준 '음성 꽃동네'

창포중학교 3학년 권 단 비

나는 꽃동네 연수원에서 보낸 시간들 중 둘째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오후 1시에 출발하여 도착한 “꽃동네 학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아이들도 많았다. 나는 그 많은 아이들 중 몇몇을 돌보려 한 방에 들어 갔는데 아이들의 상태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심했다.

그 방에는 9명 정도의 아이들이 몇몇의 수녀님과 봉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한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중 한명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보이는 아이가 한명 있었는데 그 모습이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안타깝게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대부분 착하고 귀여웠다. 몇몇의 말쑥피우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나는 걸음이 서툰 아이들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시키고 몸이 아파 누워있는 아이들 곁에 앉아서 안마도 시켜주고 하였다. 그리고 기저귀도 갈았는데 보통사람도 아닌 장애인 친구들이여서 갈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방청소를 했다.

6시가 다 되어 갔었는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잠잘 준비를 했다. 아이들을 대충 씻겨놓고 쓰레기와 빨래 그리고 기저귀를 화장실에 가서 분리시켰다. 그리고 6시 10분전, 이제 차타러 내려오라는 방송이 나왔다. 힘든 고생을 이제 안해도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쓸쓸할까 막상 아이들이랑 얼마 보내지 않은 시간이지만 헤어지려니 발걸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고, 가는 동안 내내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들을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아른 거린다.

우리나라에 그런 불쌍하고 가여운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현실이 슬펐다.

평소에는 장애인들을 길에서 보면 피하고 이상하게 쳐다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다. 그리고 꽃동네로 돌아오면서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꽃동네와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나를 건강하게 낳아서 길러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보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꽃동네와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아픈 이웃과 함께하는 이 사회가 정착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신 뿐 아니라, 훈훈한 이웃이 되어 이 지역사회를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정말 보람찬 2박3일이었던 것 같다.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의 새 지평을 열 대형 프로젝트가 정부지원 약속으로 가속화된다

지난 7월 16일 포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기술의 지평을 열어갈 우리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사업, 국립암센터 포항분원 설치는 1천억원에서 수조원대 이상의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가 예산 등의 지원을 약속해 추진이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

지난 7월 16일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이 시급하다는 가속기연구소 측의 건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업이 국립암센터 포항분원 설치와 함께 포항지역의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포항가속기를 포함한 전세계 12개 방사광가속기는 제3세대형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퉀 제4세대 가속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집중시켜 세계 방사광가속기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 기술을 확보해 왔다.

따라서 포항가속기연구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에 드는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이 해결될 경우 빠른 기간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어떤 기술인가?

기존의 제3세대 광원과 비교하면 100억배 이상 밝은 빛을 발생시킨다. 제3세대 방사광을 이용한 분석은 나노미터(10의 마이너스 9승 m)보다 정밀한 공간 분해능력을 이용해 미세한 표면을 볼 수 있었다면 제4세대 방사광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펨토초(fs: 10의 마이너스



15승 초), 즉 시간분해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빛을 내는 제4세대 방사광은 찰나에 일

어나는 화학반응까지도 관찰할 수 있어 제4세대 가속기가 개발될 경우 나노는 물론 촉매개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이미 개발에 착수해 어느 나라가 먼저 성공을 거두느냐가 최대 관건이며, 그 성공여부에 따라 그 나라 연구분야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엄청난 연구결과도 나올 수 있어 과학계는 제4세대 개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제4세대 가속기를 새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3천억~4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포항가속기는 이와 달리 직선형태의 선형가속기여서 추가설비를 구축할 경우 1천억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5년간의 짧은 기간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립암센터 포항분원 건립

지난 7월 16일 포항공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포항분원 건립안이 건의되었다.

국립암센터 포항분원의 설치될 경우 규모와 사업비는 용역조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1천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학이나 종합병원의 암연구시설의 수준을 넘어서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한 차원 높은 암 연구와 임상실험까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의료장비는 물론 우수 연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로 방사광을 이용한 암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 의학계에서는 방사광을 이용, 일부 암 정밀진단은 물론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포항은 가속기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연구소 등 수많은 전문연구인력과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타 도시보다 사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암센터 분원 등 가속기를 활용한 특화된 연구시설이 포항에 들어서게 되면 고부가가치 항암제와 바이오 신약 개발 등을 통한 각종 효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포항은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의 영일만 기적 가상체험관 21C 포항의 미래를 한 눈에 보여줍니다

포항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2020년을 향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구축한 '제2의 영일만 기적 가상체험관'이 지난 7월 20일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정책관, 체험관, 영상관, 관광정보관 등 총 4개의 웹사이트로 구성된 제2의 영일만 기적 가상 체험관은 포항시가 첨단과학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비전을 담고 있다.

2020년 미래포항을 소개하는 정책관은 21세기 포항의 비전과 4대 성장엔진산업, U자형 그린라이프, 포항사랑운동 등이 추진되는 과정과 미래의 발전된 포항의 모습을 미리 그려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과 비전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관은 하이테크

철강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 인간중심 환경도시 등 포항의 미래도시상을 체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또 관광정보관은 110km에

달하는 천혜의 해안선을 비롯한 포항시의 다양한 관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놓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상관에는 포항을 소개하는 각종 홍보영상과 뮤직비디오, 테마별 동영상 등이 구축돼 있다.

제2의 영일만기적 가상체험관은 20여년 후인 미래 포항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자긍심 고취와 시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성공 개최 포항을 세계적 첨단과학도시로 발돋움시켜

‘물리와 함께 여는 밝은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박 9일간 일정으로 73개국, 1천여명의 과학영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에서 열렸던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한편 이번 물리올림피아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포스코상은 러시아가, 2위는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가, 3위는 키르키스탄이 차지한 가운데 창의력상과 인기상은 각각 멕시코와 한국 초청학생팀 ‘시리우스’가 차지했으며, 한국은 금상 4명, 동상 1명으로 5명이 금상을 받은 중국에 이어 준우승에 머물렀다. 중국은 학생대표 5명이 모두 금상을 수상, 우승했으며 3위는 이란(금상 3명, 은상 1명, 동상 1명)이, 벨로루시와 미국(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1명)이 공동 4위에 올랐다. 개인별 종합 1위는 이론 및 실험시험을 합쳐 50점 만점중 47.7점을 얻은 벨로루시의 알렉산더 미하일리체프(17)군에게 돌아갔으며, 미국의 엘레나 유도비나(18)양은 이번 출제문제중 IPHO 학술위원회가 요구하는 가장 정확한 답을 작성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무은재(포항공대 1대총장)상’을 받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여학생중 종합성적

1위를 기록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20세미만의 청소년들의 세계적인 물리경시대회로 지난 1967년 폴란드에서 동구권 5개국 참가로 시작돼 초기에는 동유럽 국가중심으로 치러졌으나 서방 국가들의 참여로 국제 규모로 확대됐다. 한국은 1992년부터 핀란드 헬싱키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후 계속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제34회 대회에

서는 처음으로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포항은 이번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성공적 개최로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급부상시킨 계기가 됐다.

이 대회가 포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포항이 첨단과학도시로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과학기술문화가 포항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되기에 충분했다.



「제10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10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1매당 30만원 미만 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을 10인 이내로 늘리고 외부인사를 4인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절차의 분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포항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조선용공장의 증설 및 투자와 관련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72-1번지 일원 96,8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용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신항만 배후공단부지내에 있어 용도지역의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타당하나, 향후 추가개발에 따른 백사장 등 자연경관의 훼손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윽고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동빈 큰다리 경관조명 설치계획 현황보고와 관련 죽도시장을 방문하는 외부관광객과 포항시민의 상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제10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4대 후반기 포항시의회 출범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6일 제1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제4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데 이어, 지난 7월 9일 제10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4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출범시켰다.



포항시의회 의장 공 원 식



포항시의회 부의장 최 영 만

♣ 제4대 후반기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 위 원 회 (9인)	권오운 (우창동)	오락서 (기북면)	권광호(중앙동) 김종린(청하면) 김진욱(환여동) 문명호(상대1동) 박경열(흥해읍2) 이동걸(대송면) 조 진(청림·제철동)
총무경제 위 원 회 (11인)	박종연 (두호동)	김진욱 (환여동)	권오운(우창동) 김기곤(기계면) 김종린(청하면) 김종인(연일읍1) 박문하(죽도2동) 이상철(동해면) 이정호(오천읍1) 최상석(송도동) 최영만(장량동)
보사산업 위 원 회 (11인)	박석기 (해도1동)	이동걸 (대송면)	강형목(송라면) 권유형(죽장면) 김경춘(흥해읍1) 문명호(상대1동) 박태식(신광면) 오락서(기북면) 이명덕(대보면) 이상구(효곡동) 한명희(양학동)
건설도시 위 원 회 (12인)	이진수 (해도2동)	박경열 (흥해읍2)	강한국(장기면) 권광호(중앙동) 김원수(학산동) 서재원(구룡포읍) 안병권(오천읍2) 이일윤(상대2동) 이춘부(대이동) 이태용(죽도1동) 임영숙(연일읍2) 조진(청림·제철동)

재미 있는 의회 용어 풀이

♣ 표결선포후(票決宣布後) 발언금지(發言禁止)란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 110 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불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 표결선포(票決宣布)란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 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 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제1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개최

포항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했다.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지난 1년간 포항시의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77건을 감사결과로 확정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개선토록 하였다.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였고, (주)선그린의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적기에 적발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원칙 없는 공사 집행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도 낭비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지난 6월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시정 질문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정장식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상철 의원(동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 대책을, 권광호 의원(중앙동)은 도심상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한명희 의원(양학동)은 동국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현장의 수해대책을, 이동걸 의원(대송면)은 인터넷을 통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를, 김진을 의원(한여동)은 환호해맞이공원 장기투자계획을, 이상구 의원(효곡동)은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의 제정 의향을, 박경열 의원(흥해읍)은 (주)선그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내용을, 임영숙 의원(연일읍)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대책을, 안병권 의원(오천읍)은 불빛축제 정례화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 「포항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그 밖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포항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등 74건(신규제정 5, 폐지 3, 개정 66)을 심의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포항시의회는 지난 8월 3일 제4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인 도매시장 운영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309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된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이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강하게 질책하고 적자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대책이 미진할 시는 의회가 나서서 타도시 견학 및 감사 등에 착수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어린이 시의회』코너 신설



포항시의회는 의회운영에 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항시의회 홈페이지에 『어린이 시의회』코너를 마련했다. 이

번에 신설된 『어린이 시의회』 코너는 21세기 포항을 이끌어 나갈 어린 새싹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체험한 어린이 모의의회를 동영상에 담아 쉬운 이해와 친근한 의회의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어린이 시의회』는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ipohang.org> 로 접속하면 된다.

제117,118차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공원식 포항시의회의장)에서는 지난 7월 30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경북도 내 22개 시·군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7차 회의를 열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한 지방감사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결과를 설명하고, 시·군의회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중복감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지방감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날 회의에서 포항시의회의 공원식 의장이 제4대 후반기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재당선되어 협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또한, 제118차 회의를 지난 8월 31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당면한 의정 현안사항에 대한 각 시군 의회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지방분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태권도공원의 경주 유치를 위해 이종근 경주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동유치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태풍 『메기』 침수현장 방문



검 및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향후 강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원인규명과 함께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포항시의회의는 지난 8월 19일 태풍『메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두호시장, 오거리 (구)청룡회관 일대 등 침수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

포항시의회의 의장단, 원만한 노사협상 당부

포항시의회의 공원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일행은 지난 8월 18일 포항지방노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건설노조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는 전기·기계



노사대표자들을 찾아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하루 빨리 타결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8월 17일 집회행사로 부상을 입고 입원중인 세명기독병원, 성모병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위로 격려하였다.

포항시의회의 사랑의 바자회 참석 성금 전달

포항시의회의는 지난 7월 28일 포항스틸러스 축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가 주최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김효빈 이네 돕기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하여 의회에서 준비한 성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포항시의회의 미아실종 및 강도사건 수사본부 방문

포항시의회의 공원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일행은 지난 7월 20일 오후 청하지역 미아실종 및 강도사건 수사본부가 차려진 청하 파출소를 방문하여 급일봉을 전달하고 관계 경찰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나의 딸, 사랑하는 며느리 정화에게

올 봄도 흥해 뒷산 향교 뜰에는 흐드러지게 이팝나무가 피었다가 졌다.

하얀 쌀밥같이 생겼다고 ‘이팝나무’라고 한다지. 몹시도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조상님네들은 나무 이름 하나 짓는대도 운치가 있었구나. 이렇듯 좋은 풍경도 먼 바라기로 볼 수밖에 없는 내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지만, 올 봄은 아버지에게 하나도 슬픈 생각이 드는 일이 생기지 않았단다. 밝고 아름다운 내 막내며느리. 웃으면 곱게 뺨은 뚫니 하나 드러나 너를 보는 이로 하여금 한없이 밝음으로 데려가는 네 미소가 아버지를 즐겁게 하였단다.

2004년 4월 24일 12시 30분. 아버지에게도 모든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너를 가족으로 맞아들이던 날, 너희들의 결혼식이었다. 막내가 “아빠 업을 까요?” “업지 말고 삼촌 휠체어 탄 채로 들어올리자!”

생질아이의 제안에 휠체어는 가마가 되어 예식장 계단을 올라 다시 엘리베이터에 실려 3층 식당 로비에 다다랐다. 먼저 오신 사돈과 인사를 나누고, 하객 맞을 차비를 하였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어눌한 말과 부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악수를 하면서 나는 내내 식당에 오지 않으려고 잠시나마 망설였던 것을 몹시 후회를 했지. 긴장되어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혼주석에 의자대신 휠체어에 앉았으면서 아버지는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했다.

‘아름다운 부부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 되라.’는 주례사처럼 자신을 다듬는 너희들이 되리라. 하루 종일 식을 치르더라도 지루할 것 같지 않을 너희들 결혼식이 아쉽게도 삼십여 분만에 끝이 나고, 우리 같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축복의 메아리 되어 식당을 차고 넘쳤다.

반딧불보다 연약했던 내 명(命)을 연장시켜 벅찬 이 기쁨 주시려고 그토록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견디게 하였구나. 다시 한 번 그 크나큰 은혜에 감사 기도를 올려본다.

다시 너희들의 결혼식 이야기로 돌아가자!

결혼식관례에 따라 폐백이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이 몸으론 절 반기가 힘들 것 같아 고민하고 있는데, ‘신랑부모님 모시라.’는 웃각시 말에 몹시 당황되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휠체어가마는 폐백실로, 보루상단에 자리하고 우측에는 너희 어머니가 앉았다.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 서로가 되라.’ 고



김태욱 / 북구 흥해읍

덕담을 할 때, 구경꾼들의 웃음소리와 밤과 대추를 양손 가득히 절 수건에 던지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해라.’는 네 어머니 목소리가 커 어찌면 내 말이 묻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심 서운했단다. 거기에다 휠체어에 오른 내 모습이 낯선 구경꾼들의 시선까지 한 몫 거들어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단다. 하지만 이러한 일쯤은 너를 내 딸로 맞는다는 기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았지. 너희 결혼식 전날 천둥을 동반한 예상치 못한 비가

가슴을 조이게 하더니만, 새날이 밝아오자 맑고 푸름이 너희들을 축복하였다.

“아버님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난 다음날부터 봄비답지 않은 봄장마가 삼일 동안 내렸고, 이번 비로 가물었던 대지가 목을 축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는 너희들의 일생에 행운이 깃들 징조라 생각되더라.

겨우내 단힌 땅속을 헤집고 나온 새싹들은 오월에는 담록이 되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새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너희들에게 하늘도 축복하며 온 세상에 단비를 내려 넉넉하게 한 것을 보면.

사랑스런 내 딸 정화야! 모든 것들이 네게는 낯설 것이다. 불편한 시애비의 모습이 네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알아듣기 힘든 말소리와 걸음을 옮기질 못해 휠체어에 의지한 모습, 손놀림도 불편하고, 이런 것보다 불안한 호흡 탓에 음식물이 기도도 들어가 사래에다 토악질까지 하게 되는 날에는 온통 네게는 당황되는 일뿐일 게다. 넉넉하게 너희들 가정 꾸릴 때 도움주지 못한 것도 속상하고……. 자꾸만 지난 시간들이 후회가 되는구나. 그렇지만 네가 있어 지금은 행복하단다.

사랑하는 내 막내 아가야!

향해하는 배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어디로 가려는지 목적지가 뚜렷하게 계획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향해는 허사가 될 것이다.

긴 여정을 막 떠난 너희에게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사랑으로 대화를 한다면, 모든 것이 순풍의 뜻을 달 것이다. 너희 향해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아버지도 도와줄게. 건강하고 사랑하며 살거라.

고향

여름이면 평화롭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듣고 싶어 내 고향으로 간다.

유년 시절 여름이 새삼 아련히 내 곁으로 다가온다. 질푸름으로 가득 찬 온천지가 내 것이었다. 아담한 마을 해발 600고지 하늘아래 첫 동네 내 고향 상옥(上玉)은 산들이 병풍으로 둘러 쳐놓은 것처럼 동네를 감싸고 있다. 사방 팔방 어디를 보아도 산뿐이다.

어릴 적 고향은 초가 지붕 위 호박 넝쿨에 갓 태어난 새끼 호박이 조롱조롱 정답게 놀고, 앞 거랑(넋가)물장구 치고 놀던 물웅덩이들, 눈부시게 정갈한 자갈밭, 그 옆에 풍년을 약속하는 푸른 들판, 마을 어귀엔 주민들이 심어 놓은 코스모스들이 풍요로운 가을이 오기를 기다린다. 세상 밖으로 방긋 웃는 모습으로 태어난 코스모스가 정겹다. 오월이면, 노오란 감꽃이 떨어지면 동생들과 후우옥 붙어 개미를 날려 버리고 감꽃을 아삭 아삭 먹었다. 감꽃은 약간 뚫은맛이 난다. 떨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감꽃은 먹고 남은 것으로 쥘이나 풀잎에 꿰어 팔찌나 목걸이로 만들었다. 이도 시들해지면 목걸이 감꽃을 빼먹기도 했다.

칠월월이면 첫머리 막내 동생 주먹만한 파란 땡감을 주워 따듯한 물에 담가 아랫목에 한 이틀 삭혀 단감을 만들어 먹곤 했다. 삭힌 감은 군것질감으로 최고다.

여름점심때 뽕을 수 없는 보리밥. 보리밥에 삶은 감자와 함께 푹고추를 고추장에 푸욱 찍어먹는 맛은 지금도 그 맛에 침을 꿀꺽 삼켜진다. 얼른 점심을 먹고 한 손엔 감자 한 개 또 한 손엔 옥수수 한 개씩 들고 앞 냇가로 먹감으러간다. 마른 쭉 주위 푹푹 말아 행여나 귀에 물이 들어갈까 양쪽 귀에다 막고 물놀이는 생각만으로도 금새 시원해진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면 꾀감 만들려고 꺾은 감을 촘촘 엮어 처마 밑에 매단다. 꾀감은 되기 직전 까무스름하고 몰랑몰랑하고 약간 쪼글쪼글할 그때가 가장 맛이 있다. 명절이나 제사 때 끌려고 준비하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동생들이랑 어른들 모르게 훔쳐먹고 빼먹은 표시 날까 옆에 것 조금씩 당겨서 좌우로 정렬시키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정광구 / 남구 대집동

첫서리가 올 때면 나뭇가지에 남은 감을 조심스럽게 따서 헛간 향아리 속에 넣어 두었다가 동지선달 긴긴 밤에 따듯한 아랫목에 엎드려 숙제를 하다 입이 심심할 즈음 어머님께서 내주시던 홍시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시원한 별식이었다.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난 어김없이 아래, 위체가 있는 초가집 두 채를 그리고 집 뒤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감을 그렸다. 주렁주렁 달린 감

사이로 높은 푸른 하늘 흰 구름이 꼭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 때의 기억으로 난 지금도 홍시를 유난히 좋아한다.

그때는 초가지붕 위에 빨간 대추를 말리는 풍경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짝 말리지 않은 대추도 우리들에게 달콤한 군것질거리였다. 긴작대기로 지붕을 톡 치면, 대추가 대굴대굴 굴러 내려온다. 지붕 밑에서 굴러오는 대추를 받아먹는 맛 또한 잊을 수 없다.

소फल 먹이러 갔다 눈에 띄는 밭에서 캐서 구워먹는 군감자도 어린 날 추억 속에 있다. 납작한 돌 위에 풀을 덮어 그 위에다 감자를 얹어놓고 흙을 씌워 불을 지핀다. 한참 후에 돌이 뜨거워질 때쯤 나무 작대기로 흙 위에 구멍을 내고 물을 부으면 달아오른 돌이 피이 피이 식으면서 감자는 맛있게 뜸이 들면서 잘 익었다. 그 맛에 빠져 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다 소가 보이지 않아 난감할 때도 있었다. 어둠이 곧 몰려오는 두려움에 허겁지겁 소를 찾아 집으로 갔었다.

아련한 추억 속 고향. 삼복 더위도 아랑곳없이 울어대는 한 마리 매미가 되어 어린 시절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식사기도

어느 집에서 손님들을 초청해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집주인인 엄마가 여섯 살 난 딸에게 말했다.
"오늘 식사기도를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자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 나는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냥 엄마가 평소 하던 대로하면 되지."
그러자 딸이 기도를 시작했다.
"하느님, 우리 집에는 왜 자꾸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영일만을 바라보며



송정예 / 남구 지곡동

한 번도 올라보지 못했던
물에 기대어
육지가 마지막 안식처인양
무거운 몸 모래언덕을 기어오르고 있다

동력의 시동 끈 지 오래
묶여 있는 밧줄 잡고
바닷길 지우고 있다

한 때는 고기잡이 만선으로
성난 파도와 싸우며
생명 움켜쥐고
밀려가고 밀려왔을 것을

얼마나 많은 비릿한 땀내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의 물길로
저 바닥이 절로 눅눅해졌을 것인가
누렇게 뜬 얼굴들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래 산다는 것은
애써 잡은 물고기 몇 마리
시장바닥에 펼쳐고 오백원 받는 기쁨보다
객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름
빈 가슴에 주렁주렁 새기며
파도소리 들던 것임을

문득 깊은 우울의 냄새가 난다
연기처럼 빠져나간 아버지의 자리에
웅크리고 기대있는 세월이다

* 제1회 포항사랑백일장 일반부 시 장원 作

포항의 맛



신현경 / 영일고 2학년

아이고, 아지메요
과메기 한 두름 사가이소
칠천 원에 마카 싸가이소

주인 아줌마 입에서 나온
비린내 묻은 새 이름
서로 의아해하며
등그렇게 치켜 뜬
고 두 눈에는
높은 하늘 속 햇별이 묻어난다

검은 봉지 사이
비집고 나온 고 놈들의 꼬리에서
풍겨 오는 바닷속 내음

웅기종이
네 식구의 동그란 밥상 위
제 몸 위로 흐르는 윤기 사이로
내미는 그들의 별건 속살

짭조름한 미역에 돌돌 감기어
엄마 손 끝 찌릿한 맛의
버얼건 윗옷을 입은 채
내 입 속으로 기꺼이 들어온다

입 안에서 퍼지는
햇빛의 향기와
싱그러운 포항의 맛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맑은 날의 하늘을 꿈꾼다

* 제1회 포항사랑백일장 고등부 시 장원 作

창문



이재경 / 환호여중 3학년

급한 마음에
새벽까지 교과서와 씨름한 날
빹빹한 두 눈에
방법창살 사이로 맞춰지는
회색 퍼즐이
어쩐지 짙하다

부우연 소금기 머금은
아직은 서늘한 공기 너머로
동그랗게 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해

오늘은 얼마나 단단한 하루를 뺏어내려고
저렇게 붉게 달아오른 것일까

검푸른 비단 같이 자글거리던 물결은
다시 보니 주홍빛으로 변했다
일찍 일어난 갈매기 한 마리는
아침 먹기 전에 산책도 할 겸
오늘의 첫 비행을 시작했다

며칠 째 교대 근무하시는 옆집 아저씨
통근 버스 타러 나가시는 구두 소리에
아파트의 복도는 서서히 잠을 깨고

얼마 안 되는 사랑을 실어서인가
가볍게 달리는 시내 버스 소리에
밤새 웅크린 도로가 기지개를 켜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 제1회 포항사랑백일장 중등부 시 장원 작

신발



권승일 / 이동초등 2학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날
오른쪽이 왼쪽에게 투덜투덜
“왜 나만 따라 오니?”
왼쪽이도 오른쪽이에게 투덜투덜
“니가 나를 따라 오잖아.”
저 앞에 강통 하나 보이네
오른쪽이 달려가 툭 차고
왼쪽이 가 한 번 더 툭 차고
어느새 친구가 되었네

* 제1회 포항사랑백일장 초등부 시 장원 작

선생님의 착각

영수네 담임 선생님은 공주병 중독자이다,
어느 날 영수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히히, 선생님, 자세히 보니까 햄스터 닮았네요?”
헉! 그 말을 듣고 난 선생님 월!!
“호호, 고맙다, 그런데 햄스터가 어느 나라 배우니?”



누나 엉덩이~~

우(牛)시장에 함께 간 아들녀석이 흥미로운 듯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궁경을 하고 나서 물었다,
“아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소를 어루만지고 엉덩이를 두들겨 보곤 하지?”
“살집도 좋고 건강한 소를 사려고 살펴보는 거란다.”
며칠 뒤 아들이 혈레벌떡 달려와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집에 빨리 가 봐, 웬 남자가 누나를 사가려고 해”



산 좋고 물 맑기로 이름난 북구 청하면 유계리.

청정지역인 이곳에는 현재 유계저수지 축조 공사가 한창이다. 머지않아 이 저수지 축조 공사가 완공되면 아쉽게도 유계1리에 속해 있는 유천마을과 황암마을은 모두 수몰되어 사라지게 된다.

위치에 관해 이설(異說)이 있기도 하지만, 이곳 유계1리 황암마을에는 고찰 탑산사가 있었다고 전해 온다. 오늘날에 와서 탑산사가 있었던 정확한 위치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부찰(富刹)이었던 탑산사가 망하게 된 연유를 짐작할 수 있는 전설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탑산사는 비록 북구 신광면 상읍리 비학산(해발 762m) 자락에 신라 제26대 진평왕때 세워졌던 고찰 법광사에 딸린 말사였지만, 전답을 수백 마지기나 소유하고 있던 큰 절이었다. 매년 가을 추수때가 되면 승려들은 지주로서 심한 횡포를 부렸으며, 소작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해 가을 승려 한 사람이 추수 분곡을 위하여 소작인 집에 들렀다가 후한 대접을 극진히 받고 절로 돌아오다가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원구못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기를 느껴 깨어보니 아주 큰 호랑이가 앞에 턱하니 앉아 있었다. 대경실색한 승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범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어사용」을 부르며 고개를 넘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뉘이 반쯤 나가있던 승려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 달라고 소리쳤다.

어사용을 부르며 다가온 사람은 태연스럽게 범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었다.

“너는 산중의 왕이라고는 하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해하겠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는 범을 힘껏 발로 차서 계곡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나 범도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범은 계곡에서 기어올라 와서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사람과 범은 생사를 건 혈투가 벌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밀렸다. 힘이 빠진 사람이 승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놈! 소리 한 마디만 해주면 내가 범을 잡을 수 있소. 빨리 고함을 쳐주시오.”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승려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쳐버렸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버렸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승려는 탑산사로 돌아왔다. 주지스님이 승려에게 그 원인을 물었다. 승려는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승려에게 전후사정을 모두 듣고 난 주지스님은 크게 화를 냈다.

“석불을 모신 몸으로 음주 후취가 부당하고, 사무(寺務)를 띄고 나가서 속가에 폐를 끼침이 부당하며, 사람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人虎相爭),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거늘, 어찌 인간 본연의 도리를 망각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사람을 돕지 아니하고 도망을 친 것이냐! 너는 대자대비의 불제자로서 과문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니, 내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사문살정(死門殺精)을 하겠노라.”고 말한 후 목침으로 승려의 머리를 쳐서 죽이고 말았다.

당시의 나라 법에는 승려가 살인을 하면 참수하고 그가 있던 절은 폐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탑산사는 폐사 처분되었다고 한다.

탑산사의 폐사는 불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행동을 한 승려를 죽음으로써 응징한 교훈적 의미를 내포한 전설로 그 가르침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다만 아쉽게도, 탑산사지의 정확한 위치나 흔적 등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전설적 담론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향토사가들이 유계저수지 준공으로 청하면 유계1리 황암마을이 완전히 수몰되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을소풍

가을단풍이 곱게 물 드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 하지만 선선한 가을 바람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시린 옆구리 걱정하며 신세 한탄하는 노처녀, 노총각에다가, 우울 증세마저 보이며 가을을 심하게 타는 사람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연인이며 시집, 상송, 추석, 코스모스, 단풍, 낙엽, 노란 은행나무, 가을소풍, 가을운동회, 고독, 초가지붕 위에 누운 호박, 책, 독서, 곡식을 영글게 하는 햇볕, 햇밥, 황금들판, 홍시, 보름달, 살찐 말, 붉그스레한 예쁜 가을의 저녁노을, 고추잠자리, 이성친구를 그리워하는 쓸쓸한 옆구리, 첫사랑, 가을노래 등등...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특히 '가을소풍'은 코흘리개 어린 시절이 술술 묻어나는 추억의 샘터다.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가을소풍 추억들을 돌이켜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기는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있어 소풍은 학교 안에서의 갑갑한 생활을 잠시나마 뒤로하고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었지만, 종종 소풍가기 전에 소풍장소 정하는 문제나, 날을 잡는 문제로 산고를 겪기도 했다.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가는 소풍장소로는 송도 솔밭이 단연 으뜸일 게다. 인근 경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오어사나 왕룡사, 내연산 보경사 등도 많이 가는 곳 중의 하나였고, 인근의 수도산이나, 오늘날의 우현동에 있는 큰 굴 또는 작은 굴이라 불리던 곳 등 주로 가까운 야외의 넓은 숲이나 강변, 문화유적지 등을 찾아 소풍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풍(逍風)의 사전적 의미는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 하루를 보내면서 자연관찰 등의 실지학습을 하게 하는 교육활동'을 뜻한다.

봄이나 가을에 전교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숲이나 강변 등 야외나 유적지를 찾아가서 미리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라고나 할까. 그리고 자연관찰, 문화·역사적 유산이나 시설 견학, 단체행동을 통한 협동심의 배양 등 소풍의 목적은 다양했지만,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하루만이라도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긴장되었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던 것 같다.

그 옛날 선조들은 중양절(重陽節)을 맞아 각자의 신분에 걸 맞는 사람들끼리 떼를 지어 좋은 곳을 찾아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하루를 술에 취하여 흥겹게 지냈는데, 이를 단풍놀이라 한다. 특히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해 국화꽃잎을 술잔에 띄워 마시며 풍류(風流)를 즐기면서 가을을 만끽했다 한다. 이런 전통은 마치 오늘날의 가을소풍과 단풍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이후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개념의 소풍이 시작되

어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풍은 1~2시간 거리의 산이나 강, 명승 고적지를 걸어서 갔다오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19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부터 도시지역에서는 근교에서 소풍에 적합한 목적지 찾기가 수월찮게 되면서, 점차 먼 곳으로 소풍장소를 정해 버스를 타고 갔다오는 형태로 변하게 됐다.

점점 커 가면서 소풍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해 지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매년 9, 10월경이면 찾아오는 어린 시절의 가을소풍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고 전날 밤에는 흔히들 벅찬 기대감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곤 했다.

소풍은 수학여행과는 달리 기차나 버스를 타고 떠나는 장거리행 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을 택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다는 것 자체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전교생 또는 학년별로 나눠 걸어서 가을 들녘을 지나 가을소풍을 갈 때면 ‘하나 둘, 하나 둘’, 인솔담당 선생님의 호루라기 구령 소리에 발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소풍장소까지 갔고, 아이들이 소풍장소에 도착하면 금새 소풍장소는 아이들의 함성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점심시간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준 알록달록한 김밥을 먹었다. 아무리 소풍이 변했다해도 김밥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 같다. 또 삶은 밤과 땅콩, 계란, 찐 고구마, 그리고 소풍 때 빠뜨릴 수 없는 ‘칠성사이다’를 함께 먹고 마셨다. 70, 80년대 포항지역에는 ‘동방사이다’가 음료의 대표 주자격이었다.

그리고 괜히 남의 김밥을 빼앗아 먹는 애들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이런 광경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리라.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김밥을 못 싸와 한적한 곳에서 혼자 목매어 가며 꾸역꾸역 도시락을 먹거나 아예 굶기도 했다. 물론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과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이다.

또 보물찾기는 소풍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메뉴였다. 보물찾기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던 놀이 프로그램중의 하나다. 보물찾기는 학생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선생님들의 은밀한 준비작업(?)이 있는 후에 실시되었다. 번호를 적어 두었거나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쪽지를 두 세번 접어서 학생들이 잘 찾지 못할 것 같은 은밀한 장소(?)에 미리 숨겨둔다. 막상 보물찾기 시간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그 일대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 크고 작은 돌을 들추어보기도 하고,

바위틈과 나뭇가지, 나무 밑둥치를 요리조리 살펴 보기도 했다. 풀섶을 헤집기도 하며, 오줌 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다.

하나라도 보물을 찾은 아이들이야 펄쩍펄쩍 뛰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새침해져서 금새 울 것만 같은 표정들을 지었다. 왜 보물찾기는 공평할 수 없었을까? 왜 못 찾는 아이들이 더 많아야 했을까? 끝내 보물찾기에 허탕을 친 아이들은 금새라도 울 것 같은 인상들이었다. 금새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중고등학생 시절의 소풍에서 단연 인기는 장기자랑이나 오락시간. 장기자랑이나 오락시간에는 수건돌리거나 보물찾기도 물론 했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희얀 알곡한 노래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유행가 최신곡까지 아는 노래란 노래는 이때 죄다 동원되어 불러지곤 했다. 그리고 요즘은 장기자랑이나 오락시간에 디스코를 거쳐 힙합까지 등장하지만, 당시에는 고고 타임에, 개다리춤이나 다이아몬드 스텝이 가장 각광을 받았고, 어딜 가나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야말로 소풍은 입시위주의 뻑뻑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대부분 ‘신나게 잘 놀았다는 추억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며, 정신없이 설쳐댔다. 선생님들 중에도 간혹 체면이고 뭐고

없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신나게 하루를 보내던 선생님도 있었다. 가을소풍은 봄 소풍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짝궁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그리고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는 건 사진 뿐’이라며 틈만 나면 온갖 품을 다잡고 사진을 찍어댔다. 그야말로 학창시절의 진한 추억 만들기엔 여념이 없었다. 학창시절의 사진첩을 들추어 보다보면 소풍가서 찍은 사진들이 아마도 가장 많을 것이다.

가을 햇살의 따사로움 속에서 노닐던 어린 시절의 가을소풍은 희미해져 가는 추억으로 가슴 한켠을 채우며 아련히 남아 있을 뿐이다.

여전히 아름다운 가을풍경처럼...



| 재미있는 건강상식 |



가을철의 피부 상태에 신경을 쓰자

가을은 활발하던 신체 생리작용이 약간 움츠러들고 피지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해 피부 상태가 자칫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이런 가을엔 찬물로 하던 목욕을 서서히 따뜻한 물로 바꾸게 되는 시기이지만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어 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각질이 누적되어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목욕이나 샤워 후 몸에 남아있는 수분을 공기 중에 많이 빼앗기게 되므로 피부에 따로 수분을 공급해준다.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먼저 각질 제거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바디스크럽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고 물로 헹궈낸다. 바디 샴푸로 다시 한 번 헹궈준 후,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도록 바디로션이나 바디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마사지 순서는 가슴과 배는 원을 그리듯 하고, 팔이나 다리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시작해서 심장쪽으로 해준다. 허브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향이 정신적인 피로까지 풀어주어 더욱 좋다.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담배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담배를 많이 피운다. 그런데 흡연은 정말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담배는 육체적인 피로를 심화시켜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이게 한다. 흔히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의 금단 현상이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는 순간 해소되기 때문이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이제부터라도 끊는게 건강에 좋다.

나이별 호칭(呼稱)을 이번 기회에 완전 정복하자

- ◆ 지학(志學) 15세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
- ◆ 약관(弱冠) 20세 남자 나이 스무살을 뜻함
- ◆ 이립(而立) 30세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
- ◆ 불혹(不惑) 40세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
- ◆ 상수(桑壽) 48세 상(桑)자를 십(十)이 네 개와 팔(八)이 하나인 글자로 파자(破字)하여 48세
- ◆ 지명(知命) 50세 천명을 아는 나이. 지천명(知天命)이라고도 함
- ◆ 이순(耳順) 60세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이
- ◆ 환갑(還甲) 61세 일갑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환갑 또는 회갑이라 하고 경축하여 華甲(華甲)이라고도 한다.
- ◆ 종심(從心) 70세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고희(古稀)라고도 한다.
- ◆ 희수(喜壽) 77세 희(喜)자를 칠(七)이 세 번 겹쳤다고 해서
- ◆ 산수(傘壽) 80세 산(傘)자를 팔과 십의 파자로 해석
- ◆ 미수(米壽) 88세 미(米)자를 팔과 십과 팔의 파자로 해석
- ◆ 졸수(卒壽) 90세 졸(卒)자를 구와 십의 파자로 해석
- ◆ 망백(望百) 91세 91세가 되면 100살까지 살 것을 바라본다 하여 망백
- ◆ 백수(白壽) 99세 일백백자에서 한일자를 빼면 흰백자가 된다하여 99세로 봄
- ◆ 상수(上壽) 100세 사람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

| 생활의 지혜 |



긴머리를 드라이어로 빨리 말리려면

머리를 단정히 하려면 아무래도 드라이어가 필수품. 그러나, 머리를 상할 우려가 있다. 드라이어 사용시에는 반드시 머리에서 20cm 정도 떨어져 바람을 쏘도록 해야 한다.

머리를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 말리면 더 손쉽게 말릴 수 있다. 말릴 부분만 내려 머리를 끝에서부터 말리면 아무리 긴 머리라도 빠른 시간내에 단정히 말릴 수 있다.

쓰레기통의 냄새를 없애려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오래 쓰레기통에 담아두면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쓰레기통 밑바닥에 신문지를 몇겹 깔고 그 위에 표백제가 든 세척액을 뿌려두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해 냄새를 막을 뿐 아니라 살균 소독의 효과도 있다. 또 쓰레기통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도 잊지 말도록 하며, 세척액으로 자주 씻어 주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비즈니스 에티켓, 명함 주기받기에 대해서

업무용 명함 주고 받는 법

- ◆ 명함은 서서 주고 받는 것이 예의다.
- ◆ 명함을 건네는 위치는 상대방의 가슴 높이 정도가 적당하다.
- ◆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간략한 자기 소개의 말을 한다.
- ◆ 명함은 반드시 명함지갑에서 꺼내고 받은 명함도 그 곳에 넣는다.
- ◆ 명함 지갑은 바지주머니보다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매너다.
- ◆ 받은 명함을 즉시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 ◆ 명함을 받으면 일단 그 내용과 관련해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눈다.
- ◆ 명함을 받았을 때 상대의 이름이 어려운 한자거나 외국어일 땐 즉석에서 확인해 나중의 실수를 막는다.
- ◆ 소개 때와 마찬가지로 명함도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먼저 내민다. 명함 오른쪽 끝을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잡아 건네는 것이 예의다. 이때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볍게 받친다.
- ◆ 쌍방이 동시에 명함을 꺼냈을 때는 상대방 것을 왼손으로 받은 뒤 곧바로 오른손으로 옮겨 진다.

명함 주고 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일들

- ◆ 받은 명함 위에 글씨를 쓰거나 무심코 낙서를 하는 이들이 있다. 꼭 메모할 일이 있는데 종이 가 없을 땐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깨끗한 필체로 적어 넣는다.
- ◆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무심코 명함을 구기거나 손장난 치다 떨어뜨리는 행위는 큰 실례가 된다.
- ◆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돌아가면서 받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그냥 놓고 나가는 실수도 경계해야 한다.
- ◆ 금방 이름을 잊어버려 다시 명함을 꺼내 본다거나, 명함 지갑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허둥대는 모습, 명함을 충분히 챙겨두지 않아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는 경우도 꼭 피해야 하는 상황중의 하나다.

살아있는 산업현장 중심 교육기관 경북직업전문학교

포항역에서 경주방향으로 100m 지점, 북구 용흥동에 자리잡고 있는 경북직업전문학교는 교육생들의 능력과 창의력 향상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997년 8월 설립됐으며, 지역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정부위탁훈련 등의 IT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국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227개 기업과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지정 교육기관,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교육기관, Auto-cad 공인교육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자격센터, 모스크바국립항공기술대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며 교육생들의 취업과 살아있는 산업현장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ITQ시험장, 네트워크관리사, PC정비사시험장, E-TEST자격시험장, ATC사 공인시험장 등으로 지정받아 지역민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난 2001년 8월 포항시 자활훈련 및 직업적응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능력과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 4월에 이 학교의 교장이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부문에서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직업훈련기관 단체부문에서 노동부장관상 수상, 12월에는 전국 훈련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도 이 학교(<http://kb.co.kr>)에서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비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으로는 정보통신설비과정(교육수당 25만원 지급)과 Auto cad 실무 및 애니메이션 디자인 과정, 네트워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과정, 웹디자인, 웹마스터, 멀티미디어컨텐츠 과정 등을 개설해 놓고 있다.

IT분야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거

나,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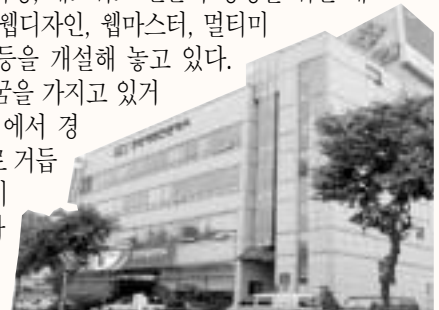
력 있는 전문가로 거듭

나길 원하는 사람이

라면 어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272-2828)



52만 시민의 따뜻한 이웃 「열린포항」이 50호를 맞았습니다

지난 1995년 9월 창간호를 발행한 지 만 9년.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소식지 열린포항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즐기게 달려왔습니다.

열린포항은 통권 제50호를 맞이하기까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자연처럼 늘 변화하는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것,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자랑스런 52만 포항 시민과 함께 꾸미고 나누어 왔기에, 그 기쁨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열린포항 겨울호, 특집호로 발행

52만 포항 시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 온 열린포항은 통권 제50호 발행을 기념하여 이번 겨울호를 100면으로 증면하여 특집호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집호에 시민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소식들과 삶의 이야기들로 「열린포항」을 꾸미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린포항은 '포항인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자,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삶의 청량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열린포항 겨울 특집호에 시민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소식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 주세요.

- ▶ 시정에 바라는 이야기
- ▶ 시민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 ▶ 시, 수필, 공트, 기행문 등의 창작품
- ▶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삶의 체험담, 추억의 사진
- ▶ 고향을 떠나 계시는 향우님들의 활동, 미담, 에피소드
- ▶ 포항의 얼을 살리고 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글
- ▶ 우리회사, 우리업소, 우리마을 자랑거리 등

♣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서상품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 791-701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열린포항」담당자 앞
연락전화 : (054) 245-6061, 6734, FAX 246-0029 E-mail : mwcheon@ipohang.org

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이 준공되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이 지난 8월 21일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사거리에서 영덕방향 100m 지점 우측에

세워졌습니다. 국비 35억 원을 들여 이번에 건립한 포항시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영상 수업이 가능한 강의실 13개와 컴퓨터실, 유아방 등이 갖춰져 있으며, 포항학습관 준공으로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영천 등 경북 동해안 6개 시군 방송통신대 재학생들의 출석 수업과 시험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공부와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노사정협의회가 출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29일 지역내 기업들의 노사화합을 유도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포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자 대표 1명, 사용자 대표 2명, 행정기관 대표 2명, 공익단체 대표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포항시노사정협의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포항시노사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불안이 지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고용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지난 5월 18일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 이날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2,840원, 8시간 하루 기준 22,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한 최저임금은 이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며,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항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포항도시가스에서는 원료비 인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5~6% 가량 인상하였습니다. 세제공미

터당 주택에서 쓰는 취사용은 5백4원54전에서 5백31원94전으로 5.43%,영업용은 6.14%, 그리고 산업용은 6.42% 인상되었으며, 앞으로 포항지역 30평형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한 달에 2천3백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어선 입·출항이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톤미만 소형 선박의 입·출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경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소형어선 입·출항 신고를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의 입·출항 신고서 소지의무 면제, 야간 항·포구 출입 제한시간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 첨단과학도시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첨단과학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첨단과학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년 전 구성한 첨단과학도시 추진협의회를 바탕으로,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등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혁신 사업으로는 1천 350억 원 규모의 나노기술집적센터 외에도 420억원 규모의 지능로봇 연구센터 건립과 7백27억원 규모의 테크노파크 조성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포항시 이미지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딱딱한 철강도시에서 탈피해 첨단과학도시로 이미지를 바꾸기로 하고, 이미지 브랜드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 그 성과물을 시가지 녹지공간과 도시 상징물 설치에 적용하고, 포항시의 심벌과 로고에도 활용해 나가게 됩니다. 포항시가 앞으로 첨단과학도시로 이미지를 개선할 경우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장성동에 시민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이 지난 6월 17일 북구 장성동 해안가에 직원 복지시설인 수련관을 새로 짓고 그 옆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해를 상징하는 갈매기와 고래 입 모양

을 합성한 형상의 수련관은 부지 740평에, 건평 220평 규모로 지어 졌으며, 주로 산림 공무원들의 휴양소로 이용됩니다. 수련관 옆 3천500여평에 벤취 18개, 쉼터 2곳, 등산로(245m), 각종 조경수, 화목류, 잔디 등을 심어 '도심 속의 숲'으로 꾸며 놓아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국민체육센터 건립 본격 추진됩니다



포항시가 경북도내 타지 방자치단체들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물리치고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해 건립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업비 전액이 체육진흥공단의 체육기금으로 건립되는 포항국민체육센터는 북구 득량동 217번지 일원 구 득량지 5,448㎡ 부지에 30억원을 들여 오는 2006년까지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게 되며,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유도장 등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센터가 건립되면 시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경기 유치 등을 통한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물가관리 3년 연속 최우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경상북도가 실시한 물가관리 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200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물가관리 최우수 시로 뽑혀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포항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올랐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2.1% 올랐습니다.

담장 허물어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포항시가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교와 관공서의 담장 허물기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남부와 영흥 등 2개 초등학교 담장



150m를 철거한 뒤 이 두 곳에 총 2천150㎡ 규모의 도심지 쉼터인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공

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도 1개소당 평균 7천만~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해 지난 6월 동부초등학교 담장 73m를 허물고 이곳에 667㎡의 소공원을 조성한 데 이어 중앙초등학교 담장 93m를 허물고 1천271㎡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죽도초등학교와 포항시청 청소과 건물의 담장을 허물고 소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 남구청, 새내기 부부 혼인신고시, 사진 찍어 선물합니다

포항시 남구청에서는 새내기 부부가 혼인신고를 위해 민원실을 찾는 경우 혼인신고 장면을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선물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순간을 사진속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배려하면서도 급증하는 이혼율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새내기 부부가 함께 오셔서 법적인 새 출발에 대한 의미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가 자활사업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항시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추진 상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9월 7일 최우수기관 지정서 및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선거일시 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종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 개정: 상시 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권자들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축·부의금품,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의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5천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생활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즉시 신고를 바랍니다. 선거법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재미있는 퍼즐세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가로열쇠〉

- ① 여름철에 이 꽃의 분홍색 꽃잎을 따서 여자아이들의 손톱을 붉게 물들이기도 했음. 봉숭아라고도 한다. 울밑에 핀 ○○○야!
- ② 신라때 문벌과 학식이 있는 집안의 자제들을 뽑아 심신단련과 사회의 선도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수련단체의 무리. 교육적·군사적·사교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선도, 선랑, 풍월주, 화판이라고도 함.
- ⑤ 우리고장 축장의 450~650m 되는 산간지대 산비탈에서 생산되는 명품사과. 이번 호의 '우리고장의 명품을 찾아서' 코너에 소개되어 있다.
- ⑥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덕이 적은 사람의 뜻.
- ⑦ 어떤 물품이나 사람 등을 알아보는 정도. 광고를 통해 제품의 ○○○를 높임.
- ⑪ 착하고 어진 행실. ○○학생은 상을 주죠.
- ⑬ 번개같이 매우 짧은 시간. 아주 신속한 동작. ○○○○와 같은 편치.

〈세로열쇠〉

- ① 북구 기계면 남쪽에 있는 해발 589m(600m라고도 함)의 산으로, 산 정상에 봉황의 모양을 한 거대한 암봉이 있는 산으로, '우리고장의 명소를 찾아서' 코너에 소개돼 있다.
- ② 충격·마찰·열 등에 의해 급격한 화학변화를 일으켜 많은 양의 열과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하는 것.
- ③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承政院)의 승지들 가운데 으뜸인 정삼품 벼슬을 하는 사람.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
- ④ 유밀과(油蜜果)의 하나. 과줄이라고 하며, 반죽에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음. 예로부터 필수적인 제향(祭享) 음식이며, 요즈음도 잔치나 상례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 ⑤ 세상살이를 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경험할 때 비유하는 말.
- ⑥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 과수. 미망인. 홀어미.
- ⑧ 전망이 트인 곳에서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 스카이라인
- ⑨ 남구 연일읍, 청림동, 동해면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우리고장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 잎을 식용하기 위해 재배하며, 정구지라고도 함.
- ⑩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음력 8월 보름. 중추절. 한가위.
- ⑫ 평생에 행한 일이나 업적. 자취. 공적.

〈보내실 곳〉

우791-701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열린포항」 담당자 앞
 연락처: (054) 245-6061, 6734 FAX 246-0029 E-mail: mwcheon@ipohang.org

지난호 정답

원	추	리	콜	제	
	파			헌	
축	발	차	기	절	편
	마		라		자
	술		성		충
인	사	유	명	사	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호(통권 제48호, 2004년 여름)에도 많은 시민과 독자들께서 좋은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더 알찬 내용의 향토소식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집자)

지난호에 엮서 응모하여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장미량(두호동), 탁순옥(학산동), 박복자(연일읍), 한보석(이동), 박은경(대잠동), 이석순(학산동), 송춘남(서울특별시), 배종순(두호동), 윤정현(대구광역시), 김세원(연일읍), 윤동식(해도2동), 장진락(효자동), 금동수(송도동), 권은경(해도2동), 권강현(대잠동), 김윤희(덕산동), 조원호(대구광역시), 김재순(대잠동)

사진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6.25전쟁 발발로 피난행렬에 나선 포항 사람들(1950년, 대잠동) ▲



부녀자들이 동원되어 보리밭기를 하고 있는 광경(1962년) ▲



동빈동 선착장에서 나룻배를 기다리는 사람들(1968년 7월) ▲

※ 위의 과거사진은 북구 대신동에 사시는 박신남씨가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기북면 대곡리 4하, 소년극단 단원들의 모습(1965년 2월17일) ▲

※ 위의 과거사진 2장은 북구 기북면 오덕1리 덕동마을에 살고 계시는 이동진씨가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포항의 과거를 찾습니다

오늘날의 포항을 있게 한 과거 포항의 향토상을 담은 기록사진(자연경관 및 시설물, 인물, 행사사진 등)을 찾고 있습니다. **【열린포항】**을 통해 52만 포항시민들이 포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한 기록 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분은 문화공보관광과 「열린포항」 편집담당 (☎054-245-6061, 6734)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POHANG VISION

대구 · 경북의 미래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2010년, 인구 80만명, 1인당 소득 2만불 이상달성의 광역도시 —

4대 성장엔진산업 육성

→ 잘사는 포항

U자형 Green-Life 조성

→ 아름다운 도시

포항사랑 운동 전개

→ 정직한 시민사회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살기 좋은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을 건설하여
대구 · 경북의 미래, 환동해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열린 포항

이웃과 함께 둘러보는 향토소식지 열린포항은 포항의 열과 시민들의 순수한 모습을 가득 담아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52만 시민의 소식지입니다.

다 보신 후에는 이웃에게 건네주세요 이웃과의 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아울러, 열린포항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엮서에 담아 보내주세요. 열린포항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